

소학생

★ 졸업생 특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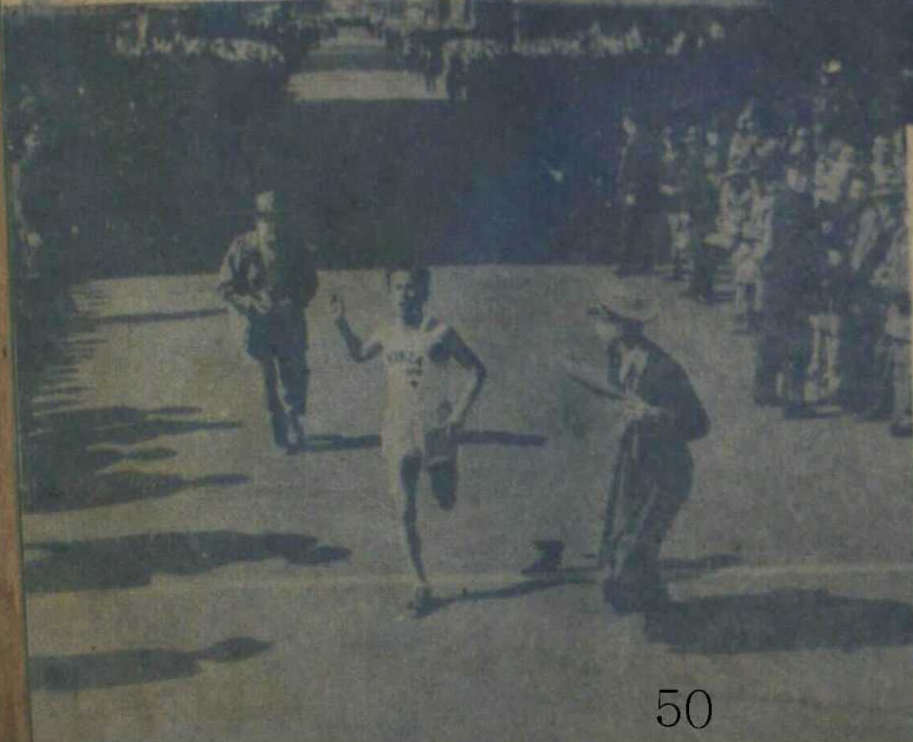
6 월치



소학생 화보

미·소 공동 위원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소 공동 위원회"는 휴회된지 1년만인 지난 5월 21일, 드디어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다. 사진은 그날 모인 두 나라 대표들인데, 향하여 바른 편이 쓰면 왼편이 미국.



▷ "아힘" 주최 · 졸업생 좌담회
이번에 36 페이지를 보았다.

▷ 마라톤 왕 · 서 윤복 선수

지난 4월 19일 로스톤 제 마라톤 대회에서 1 착한 서 윤복 선수는, 2 시간 39 분 39 초라는 세계 신기록 세웠다. 사진은 끝에 들어 는 서 선수.

6 월차 * 차례

월업성 목록

- *월업성 속하편아.....(19)
- *큰 이상승.....정 열한(27)
- *월업성 열거.....한 열한(27)
- *월업성 사범의.....을 열한(27)
- *월업성 주경의.....서 열한(27)
- *월업성.....학 열한(27)
- *월업성.....학 열한(27)
- *월업성.....학 열한(27)
- *월업성.....학 열한(27)
- *월업성.....학 열한(27)
- *월업성.....학 열한(27)

월업성 좌담회 (30)

- 정원 * 박 순호 * 장 부수
- 박수 * 윤 승진 * 최 진수
- 최희 * 정 순일 * 손 순일
- 수승 * 이 승 * 박 승경
- 제종 * 문 영 * 김 순
- 김 재호 * 심 인성 * 박 경환

- 정원가가 되려면.....이 열한(27)
- 박순가가 되려면.....김 열한(27)
- 송근가가 되려면.....이 열한(27)
- 파라자가 되려면.....조 열한(27)
- 하나의 소박한 서예가
- 이희순(3) 이주영(3) 이주영(27)
- 부활 * 월업성 노래.....(27)
- 세로된 보가 * 서을 삼장.....(27)
- 남조선 공화국으로.....(27)
- 종교 * 보의 노한.....한 열한(27)
- 종교 * 연보의노한.....이 열한(27)
- 종교 * 의 노.....이 열한(27)
- 종교 * 오 의.....이 열한(27)
- 소년 * 이순신장관.....박 열한(27)
- 소년 * 자치기.....박 열한(27)
- 이상도 학야 * 의자의 학.....(27)
- 기상대 쓰는 말.....김 열한(27)
- 우리자랑 * 음악의.....조 열한(27)
- 이만익 관한 역사.....이 열한(27)
- *조선공부(27) *조선공부(27)
- *조선학원 지의 * 세계지리.....(27)
- *세계 소식(27) *월업성 열거(27)
- 소학생 구약부 * 반불교나지(27)
- 소학생 국호(27) *국학사(27)
- 대독자 상하기 문제.....(27)
- 김관소학생 * 인건 성장.....(27)

쓰러질 듯 하며
안 쓰리지는

피자의 사랑



이러 분, 램(塔)이라는 것
을 아십니까? 그것은 절이
나 공원 같은데 있는 여러
층으로 높이 쌓은 건물이지
요. 여러 분은 우며 서울 달
을 본일 때 유명한 램이
있는데, 몇 층인지 아십니
까? 그것은 13 층이나 된답니다.
연도(即度) 같은 데서
는 몇 층은 50 층이나 되는
경장한 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이상한 하
나의 램이 있습니다. 다음 해
이저의 그림과도 같이 기수들이
쓰러져서 되고 하나만 램입
니다. 이러의 라자라고 하
는 곳에 왔는데, 기수들이
가 있기 때문에 "피자의 사
랑"(PIZZA)이라고 불려져 있
습니다. 땅을 쓰러질 것 같
지 않아요? 보통 잘스면 번
번 쓰러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 램만큼은 반대로 나서 6,
7 미 높이나 되는데도 램을
때 앞으로 기술이전 재도 저
같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얇은 바닥이 붙어도, 어
떠한 힘 전 붙이 모여서 밑
에도 쓸처럼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쓰러

지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
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
니다.

이 피자라는 곳에는 크리
스트교의 전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지금부터 750 년쯤
전혀 보난이라는 사람이 세
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쓸처럼 일기 되지 않고 10 년
이 걸리고 20 년이 지나도
이 램은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중에 보난은 죽고,
그 아들의 손으로, 또 손자
의 손으로 차례차례 그 일을
맡아 했으나 50 년, 100 년이
쳐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완전히 만들어
진 것은 176 년 후의 일입니
다. 그러나 이 176 년의 건
삭이래 풀 일이 났습니다.
그것은 램을 3 층가량 만들
어 가는 중에 어떤 점선지
람이 한 쪽으로 좌우 기울어
졌어요. 아무래 해도 코쳐지
지는 않아서 그대로 3 층, 5
층, 6 층하고 만들었는데 차
승차를 높이 갈수록 기울어
지는 것도 이때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게하여 램은 7 층까지

참고 거기서 위는 그만큼 두
기포 하고 그 대신에 8 층을
조그맣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8 층단은 기우들이 쌓지 않
고 반듯하게 쌓았습니다. 어
리분은 중력(重力)과 수직선
(垂直線)에 대한 것을 양과
(攪料) 시간에 매우 것을 줄
입니다. 결국 이 탑은 이렇
게 땅을 쓰러질 것 같으나,
탑의 맨 위의 원 꼭대서부터
의 수직선이 탑의 맨 아래의
오른 쪽보다 훨씬 원 꼭대
있기 때문에 중력의 중심이
탑의 내부에 있으므로 안 쓰
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더 기울어져 수직선이 탑
에서 벗어나 탑의 중력의 중
심이 변하기만 하면 탑은 금
시로 조각조각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여간 8 층이나 되고 높
이는 55 미터, 직경(直徑)은



(피자의 사람)

16 미터나 되는 탑이 몇 백
년이라는 동안, 기울어진 채
로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면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것
이 만약 처음부터 곧 바로
되었더라면 좀 더 높게 10
층이나 15 층이라도 쌓아 가
지고 세계 제일 높은 탑이
되었을는지 모르는데 참 분

한 일이지요. 더욱 그 탑은
원래 중을 때 다느라고 세운
것이라 8 층에는 여러 큰 창
이 있고 이것이 울릴 때에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또 탑의 내부에는 8 미
터의 돌 층이 있고, 이것에
의하여 탑의 꼭대기에 올라
가면 꽃이 일때마다 아름다운
이래미의 물이 내리 보
입니다.

그리고 보통 탑을 말할 때
그것이 부 층이면 이중탑, 세
층이면 삼중탑, 이렇게 층 수
에 따라서 이중탑 칠중탑 ...
...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반
비문이라는 나라에서는 하
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고
꼭 세울 뻔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는 유
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불
은 굶으로 흐른다

남을 배 나쁜 짓을 하고 모른
게 하기도, 필경에는 드러나서
벌을 받게 된다는 뜻.

남의 염병이 내 고별만
못하다

고집속담

인심이만, 제 일에는 작은 일
에도 야단을 하지만, 남의 일에

는 매우 냉담하다는 말.

간에 불고 염통에 불는다

일본놈들에게 알탕거리다가,
또 서양 사람한테 알탕거리, 제
실속을 잘 차리는, 그러한 사람
꼴을 가리켜 하는 말.





역사 소설 이 순신 장군 박 태월 지음
김 기창 그림

제 10 장 나라의 비운

三. 장군의 비운

어느 날, 장군에게 나명(拿命)이라 하여 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때가, 장군은 수군을 거느리고 가덕(加德) 바다에 가 있었다. 뜻밖에도 나명이 내려진 것을 알자, 장군은, 자기 한 몸보다도, 나라 생각을 하고, 진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나라에서 내리신 분부를 어찌 할 길이 없다. 장군은, 분구히 배를 돌려서 한살포 본진(本陣)으로 돌아왔다.

그의 뒤를 밟아, 삼도수군 동세사가 된 것은, 월균(元均)이다.

장군은 진중(陣中)에 있는, 군량미(軍糧米) 구천 구백 십 사 석(石)과, 화약 삼천 근(斤)과, 그 밖에 무기 일체(軍器 一切)를 맡김 월균에게 전장(傳掌)하고, 정유년(丁酉年) —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 을 이

월 스무 셋째날, 금부도사(禁府都事)에게 압령(押領)되어, 함거(艦車)에 실린 몸이 멀리 서울을 향하여 떠났다.

연로(沿路) 백성들은, 남녀 노유(男女老幼)가 없이, 모두 길로 달려 나와, 장군의 함거를 배워 싸고, 혹은 땅을 치며, 혹은 제 가슴을 두드리며 목을 놓아 울었다.

“삿도(使道)님! 삿도님! 저희들을 버려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삿도님이 가시고 보면, 저희는 속절없이 죽을 밖에 없는 노릇을...”

하루 아침에 최저할 싸움 많은 동포들의, 그렇듯이나 애끓는 정경(情狀)을 눈 앞에 보고, 장군은 바로 장자가 끊기는 듯하였다.

때에, 도체찰사 이원익(都體察使 李元翼)이 경상도에 있다가, 장군이 죄로 몰리어 서울로 잡혀 올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소스마치게 놀랐다. 이 순신 장군을 잡아 울려 가고, 월균(元均)을 대신하다니, 이는 장군 일개인의 비운(悲運)이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의 비운이라 통탄(痛嘆)하였다.

이원익은, 곧 나라에 글을 올렸다.

“왜적이 가장 꺼리는 것은 우리 나라 수군이요, 아무 죄 없는 이 순신을 잡아 울리고, 저 무능(無能)한 월균이라도 대신하다니, 좋아 할 자는 오직 왜적들 밖에 없으리다.....”



나의 소학생 시대 ①

글방 도련님

글방과 대학 이 회상

나는 소학교를 다니 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의 문과 같은 소학생 시대의 시련만은 나도 가졌었습니다. 다섯 살 되던 해 봄부터, 어머니한테 전자(于字文)를 배우고, 여섯 살부터는 아버지한테서 몽룡선습(蒙龍先習)을 배웠습니다. 전자와 몽룡선습은 모두 한문(漢文)을 배우는 초중 교과서입니다. 그 시대는 오늘날과 같이 국어와 국문을 배우지 않고, 외국 문인 한문을 먼저 배웠습니다. 오늘 앉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일이지요.

일곱 살 되던 해부터는 글방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글방이었습니다. 글방을 초당(草堂)이라고도 이르는 가락에 글방에 다니는 아이를 글방도련님 혹은 초당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도 물론 글방도련님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어미한테서 머리를 깎게 되기도 하고, 갈자 당기를 드려 주시면, 두루마기를 입고 책을 읽게 되고, 글방과 가서 선생님과 함께 글을 공부합니다.

나 다니던 글방에는 아이들 이 열댓 명 되었습니다. 그 열댓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나이도 같지 않고 배우는 책도 모두 달랐습니다. 나는 그중 어떤 것이든, 소부 살이 읽은 이도 있고 열 열곱 살 된 학동들, 열 배머섯 살 열 두 살, 아홉, 열, 열 한 살 짜리가 뒤섞여서 나이가 층층이었고 배우는 책도 사람마다 (8 페이지에)

그러나 아무 보람이 없는 노릇이다.

삼월 초 사흘날 저녁에, 장군을 시골에 도착하자, 마침내, 음(厭)에 걸리는 일이 되고 말았다.

장군이 막 옥문을 걸어 써머 할 때, 친히 지내던 이 하나가 찾아 와서,

“지금, 위에서는 진노(震怒)하심이 대단하고, 또 조정의 공론은 중(重)함대로 중하니, 이 일을 장차 어찌 하였으면 좋겠지요?”

장군을 위하여, 애용하여 하기를 마지않는다.

그러나, 장군은, 태연한 기색으로,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란 다 명(命)이 있는 것이요. 죽으면 죽는 개지요.”

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었다.

왕은, 어사(御使)를 한산도로 보내어, 이번 일의 진상(眞相)을 알아 올리게 하였다.

명을 받고 남도로 내려 간 어사는, 임제루에 원근과 함께가 되어 장군을 모함하던 자다. 그는, 기이로, 이 순신 장군을 죄로 돌려 하여, 복명(復命)하기를,

“장동 천정이가 건너 오다가 섬해가 걸려서, 이때 동안이나 꿈자를 못하였는데, 이 순신은 이것을 잡으며 알라고, 그대로 리려 두었소이다.”

하였다.

이 날, 경림군 권명림(慶林 權命充)이 경연(經筵)에 임시(入侍)하였다가 이 말을 듣고,

“의지(意志) 본래 때 마는 익숙한 터에, 섬해 걸려서 이때에이나 있었다는 것이, 아무런 생각하여도 끝이 들리지 않소이다.”

하였다. 왕도 이 말에는 뜻이 같았다.

그날 열 이튿날, 장군은 한 번 문초(問相)를 받고, 마시 옥중(獄中)에서 슬픈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전파 수수사 이억기(李億祺)가 사람을 보내어, 장군에게 글을 올렸다.

글에는, 장군의 죄 없이 옥에 갇혔음을 서머위 하고, 다음에, 원균(元均)이 동지사(統制使)가 된 뒤로, 나날이 핏새가 글방 가는 우리 수군을 말하여,

“... 이제 오려지 않아서, 우리 수군은 만드시 제지에게 제하고 말 형편이나, 우리는 과연 어디서 죽을 죄를 모도겠소이다.”

하였다. 글을 보고 나자, 장군은 나라를 위하여 호거운 눈물을 글할 수가 없었다.

장군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이 기회에, 아무 장군을 없애려 하여 음모를 꾸미

다. 초경에서도, 중죄(重罪)를 도둑하는 무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다시서, 장군의 죄 없음을 별편의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관중후부사 정탁(朝中樞府事 鄭琢)과 같은 자가 그러하다.

정탁은 말하였다.

“이 순신으로 말하면 관중후부사도 고승(古丞)에 드문 명장(名將)이되나, 그를 속이라니 필연이나 한 말씀이요? 제국이 흐른 것을 미미 알코도 나가서 잡지 않았다고 하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을, 얼마 앎아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안단 말씀이요? 거기에는, 또, 그만큼 이유가 있었을 것이되나, 그것을 저급, 기어코, 죄도 다스리며 하는 것은 천만 부

당(不當)한 일이요, 그뿐만 아니라, 설혹 그때가 정말 죄가 있다 하여라도, 나라 형세가 환할 위급(危急)한 때, 아직 용서하여 두고, 죄로 하여금 큰 공(功)을 세우게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믿소이다.”

술은 말이다. 정당(正當)한 주장이었다. 왕도 그 말을 옳다고 믿었다.

이러하여, 장군은, 육종에서 진모(辛叟)를 첨기스루 이르러만인 사월 초 하룻날, 다시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편의 관직(官職)은 모조로 삭탈(削奪) 당하고, 다만 백의(白衣)로 천수원(天守院)의 막하(幕下)에 머물러서 종군(從軍) 하라는 것이다. 아직도 장군은 죄인(罪人)의 몸이었다.

앞으로 전공(戰功)을 세워야 할, 비르조, 원천히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었다.

장군은 금부도사(禁府都事)에게 알명(押領)되어 남도(南道)를 바라코 떠났다.

죄인의 몸으로는, 고할 아산(牙山) 고을을 바로 정해 두고 지나면서도, 병석(病席)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장안한이 가 죄음지도 못한다. 장군의 선고 엄당한 심사가 이루어 말하여 무엇 하라?

그러자 열 사흘날, 남알(南陽)을 떠나 회강(海江)으로 향하는 도중에서, 장군은 공 순화(順化)를 만났다.

순화가 울며 울리는 관원을 만나 보니, 장군이 자나 깨나 한사마 잊은 적이 없었던, 어머니야,라도 아들 건인 알라못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한다.

이 어인 음모(因報)냐? 이 어인 변고(變故)냐? 연로(年老)하신 어머니 영환이 다시 기도, 불초(不肖)한 이 자식이 나타나 죄를 열기 때문이요, 명은 어머니를 돌아 가시기도, 이 자식 생각 하나도 과도히 애통(哀痛)하시기 때문……

장군은, 금시에 눈앞이 캄캄하였다. 하물이 무너져고,



★나의 소학생 시대★②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문 뿐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이들은 벌써 장가를 들어서 어른이 되어 상투를 틀고 방건을 쓴 뒤에 말총으로 잔 정자관(鵝子冠)을 썼습니다. 선생님 한기 글을 배울 때에는 한 사람씩 따로 배웁니다. 선생님 앞에 마주 향하여 꿇어앉아서, 중간에 책상을 놓고 배웁니다. 때워 가지고는 각각 제 자리에 돌아 가서 책을 향하여 등을 마주하고 물러 앉아서, 좌우 쪽으로 부라질을 해 가며 글을 독소리를 하여 생생 읽습니다. 이때 아이가 다 자라 소리를 하여 읽어내려가 밤이 떠나 갈 듯이 요란합니다. 그러하여 그날 배운 것 한 가지만을 중일 때마다 해가 지면 선생님께 한 사람씩 가서 편을 하고 집으로 돌아 옵니다.

나는 그때 통감(通鑑)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책입니다. 역사라도 우리 나라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입니다. 우리 것은 제쳐 놓고 글도 남의 것, 역사도 남의 것을 먼저 배웠습니다. 아홉 살 때부터인지 경서(經書)를 배우다가, 경서에는 언해(諺解)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글을 붙여 배웠습니다.

칼찬 선생님

숙명 과학관 석 주명

나의 소학생 시대에는 소학교라고는 보통 학교란 것이었다. 그것로 4년 제도의 학교요, 열 살 이상 된 사람만 넣었으니 제일 빨리 공부를 시작 (14 페이지에)

망이 꺼지기도, 이렇듯 놀라 울고, 이렇듯 기막힐 수가 있으랴? 불초한 이 자식은, 그에, 아버지 임종(臨終)도 못 모시었구나?.....

장군은, 암명하는 도사(都事)에게 간절히 청하여, 겨우, 집에 돌아 가서 성복(成服)하고, 열 아흐렛날, 마시 집을 떠났다.

나라에 충성을 다 하였

전한 피(罪)가 이따 이르고,

어찌이렇게 호노하고자 하며, 아버지, 또한, 가시는구나.....

때때 사모지는 지극한 슬픔, 원한을, 어찌하지 못하며, 장군은, 초계(草溪)에 있는 전(陳)을 원수(權傑元帥)의 전(陣)에 들어 갔다.

(계속)



세계 제일

세계에서 제일 오래 된 건축은 에겟트(埃及) 나라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그것은 옛날 이집트 나라 임금님의 무덤으로 한없이 넓은 사막 가운데 솟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피라밋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기젯트라는 임금님의 무덤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세운 것으로 가장 오래 된 고돌인 동시에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 중에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 크기의 넓이만 48만 평방 피트(呎)라는데, 기러사 나라에 유명한 역사가인 프라츠라는 이는 말하기를 이 기젯트의 피라밋을 쌓을 때 20만 인의 사람이 매일 쌓았어도 20년 동안은 넉넉히 걸렸으리라 합니다.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은 인도의 마지마할의 영묘(靈廟)입니다. 이것은 옛날 인도의 사제 왕가라는 임금의 지극히 사랑하던 왕후의 죽은 것을 무한히 슬퍼하여 오래 기념하려고 세운 영묘입니다. 일 또는 본시 영묘를 만들려고 많이 만드는 나라이지만, 이 마지마할과 같이 아름답게 된 것은 없다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볼 수 있을 아름다움을 온통 기울여서 만든 한없이 중요한 건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된 것으로 이 마지마할의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웅장한 모양은, 제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그제로 볼 수가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몇 천 년이 지난 오늘날 보아도 그렇게 아름답거든, 그 당시 처음으로 지어졌을 때의 아름다움이야 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로 전하는 말에 의하면 2만 명의 유명한 복수와 기술자가 모여서 20년 동안 열심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놀라운 건물이지요.



기상에 쓰는 말 뜻 ②

서울 육우소 심재선

기후(氣候)

기후라 함은 어느 곳에 나타날 법기의 오랫동안의 평균 상태를 가르쳐 말한 것입니다.

계절풍(季節風)

겨울에 만주나 소련, 시베리아 지방으로부터 남쪽 바다 많은 지방으로 향하여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반대로 무더운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불고 있는 현상(現象)을 말한 것이며, 약한 번을 두고 그의 번하는 시절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을 계절풍(風系)을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에 쌀쌀한 북쪽 혹은 북서쪽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대륙 지방이 몹시 추워서 온도가 낮아져서 생기고 따뜻한 남쪽 지방에는 저기압이 있는 관계로 이와 같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L)

뇌우(雷雨)

뇌성(雷聲)이나 번갯불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한 것입니다.

눈(雪)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원인으로 내리는 것이나 온도가 영도로 내려갈 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水蒸氣)가 얼어 붙어 고서 같은

현상으로 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C)

담천(曇天)

하루의 또는 어느 때의 평균 운량 또는 구름이 하늘의 10분의 8 이상을 가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류권(對流圈)

성층권(成層圈)의 아래에 있는 공기를 말한 것이며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눈, 비, 서리, 이슬, 바람, 구름 같은 것은 모두 이 대류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기(大氣)

우리가 살고 있는 땅면의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등압선(等壓線)

기압(氣壓)이 같은 곳을 이은 선(線)을 말한 것이며 이것으로 고기압의 자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상대나 육우소에서는 등압선을 그려서 일기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E)

로빈슨 풍력계(風力計)

관상대나 육우소 또는 농사 시험장 학교 같은 곳에서 십자 같은 쇠 줄 끝에 유리가 부엌에서 쓰고 있는 극자 같은 네 개의 풍력

(風盆)가 달려, 유리가 돌면 풍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로빈슨 풍력계입니다. 이 기계로 바람의 속도를 계산하면, 일정한 시간에 돈 수를 시간으로 세하면, 곧 평균 풍속(風速)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K)

무지개(虹)

소낙비나 다른 비가 내릴 때, 하늘에 볼 수 있는 환한 7색의 반 동그마리, 이것은 햇빛이 구름 물 방울에 비친 뒤 굽으며져 반사(反射)하여, 또한 번 굽으며져 나올 때, 일곱 가지 색이 우리 눈에 비쳐게 되는 것입니다.

(N)

불연속선(不連續線)

성질이 같지 않은 공기의 경계선(境界線)을 말한 것이며, 그 경계선의 양 쪽에서는 바람, 기온, 일기 등이 몹시 다른 것입니다. 불연속선 위에 저기압이 생기기 쉬운 일이 있고, 또 저기압이 없이 불연속선이 지나 갈 때는 좋지 못한 날씨가 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불연속선이 지나 갈 때의 좋은 예로서, 지금까지 동쪽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비 혹은 눈이 내리다가 서쪽이나, 북 서쪽으로 바람쪽이 변하며 바람 속도가 다소 세어지면 그때는 벌써 불연속선이 지나 간 것을 의미하며 차차 일기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정명하게 개서, 한 걸의 구름도 못 보던 날의 이틀날, 산과 물이 온 세계로 덮여 있으며, 하늘에는 또다시 구름을 한 점도 볼 수 없는 것은 밤 사이에 불연속선이 지나 갔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연속선이 지나 간 뒤에는, 때때로 바람이 약간 제

게 불고 추워지는 일이 많습
니다.

비(雨)

수증기를 많이 품고 있는 공기
가 서기압이나, 불연속선이 지나
갈 때, 갑자기 하늘 높이 솟아
오르면, 수증기가 높은 하늘 위
에서 조그마한 물방울로 변하는
중에, 방울과 방울이 또 다시 부
더치고 엉겨서 큰 물방울로 되
어, 공기 중에 떠 다닐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질 때, 땅 위로 떨어
지게 되는 것을 곧 비라고 합
니다.

(入)

삼한 사온(三寒 四溫)

한주나, 조선서 겨울에 춥고 추
운 날씨가 잠 자일 계속되다가,
갑자기 봄이 돌아 온 곳이 다
뜻 해지는 일이 있으며, 이것을 "삼
한 사온"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의 의미 그대로 3일이 추우면
4일이 따뜻해진다라는 것이 아니
고, 대강 그 주기(周期)가 7일
가량으로 돌아 오게 되므로, 이
같은 일이 된 것입니다. 그 원인
을 살펴 보면 겨울에 한주나 물
고 근처의 기온이 너무나 낮은
관계로, 그 근처는 언젠지 고
기압이 형성거르고 있으나, 그리
한 고기압도 세력은 떨어져 쇠
고에 달하면 반드시 약해질 때가
있으며, 고기압의 세력이 중국
황하 부근에서 끊어지면, 그 물
을 따라서 벌써 저기압이 물고 남
쪽에 생겨 극저 오게 됩니다. 그
러면 당연히 저기압을 향하여 남
쪽 바람이 불어 들어 오게 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도 남쪽 바람
을 맞고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가 사온이라고 할 때이며, 때
아닌 때에 개나리 꽃이 피는 일
도 있는 것입니다.

사계(四季)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함

새로 만든 교과서



서울 삼광 국민 학교 교가

천년 만년 의종개 잘 지내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의 빛.
서로 서로 배우며 도와 가는
우리들은 자라는 이 땅의 빛.
해와 달과 별처럼
청다운 우리 삼광
청다운 동무.

(윤 석승 지음)

이 세상을 품고루 비취 주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의 빛.
맑은 태로 세상을 이끌고 걸
우리들은 머지는 이 땅의 빛.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우리 삼광
빛나는 동무.

것이여. 관상대나 속주소에서는
3, 4, 5월이 봄, 6, 7, 8월이 여름,
9, 10, 11월이 가을, 12, 1, 2월
을 겨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리(氣)

해의 열을 받은 뒤, 복사로 인
하여 식어서 온도가 영도(零度)
이하로 내려면, 지물(地物) 가까
이 있는 얇은 공기의 층(層)이
역사 영도 이하로 내려 포화 되
어 가지고, 그 중에 있는 수증기
가 지물의 표면에 굳어 얼게 됩
니다. 이것이 서미입니다.

수증기(水蒸氣)

공기 중에는 항상 물기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증기라
고 하며, 그 양은 매우 적으나,
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섭씨 온도계(攝氏 溫度計)

물이 얼 때의 온도가 영도(零
度), 물이 끓을 때의 온도를 100
도(百度)로 한 온도계이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곳에 서

지 쓰고 있습니다.

선풍(旋風)

열대 지방에 생기는 저기압을
말한 것이며, 그 풍압선은 달걀
같은 타원형(橢圓形)을 하고 있
으며, 그 직경은 100 마일부터
2, 300 마일 이상이나 됩니다. 우
편 나라 근처에서는 서쪽에서
동, 혹은 북동쪽으로 진행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겨울,
봄으로 물고 남반에서 발생하여,
우리 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들어
갈 때는 장수명이 많고 모진 위
력이 붙게 됩니다.

성층권(成層圈)

대기의 아대 중에서는, 기온은
오히려 오르면더 내려 내려고
있습니다. 무 내려는 양은 100 미
터에 대하여 0.5 도 내려 0.6 도
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층까지 올라 가면 기온이 내려지
고, 오히려 오르는 곳이 있습
니다. 이곳을 성층권이라고 부

이다. 그 숲이든 우리 나라에서
10킬로 가량이고 남쪽으로 갈
수록 숲이 지게 되어, 또 서쪽에
아카 바스 락이(栗莢)가 있는 것
입니다.

습도(濕度)

공기 속에 숨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할 때 쓰는 단위이다. 1
평방 미터의 공기 안에 몇 그램
의 수증기가 있다고 말하여도 정
당하겠습니까. 온도에 따라 수
증기를 숨기는 한도(限度)가 각
각 같으므로, 전습(乾濕)의 상
를 확실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
때서 그때 그때의 온도에 따라
가장 많이 숨길 수 있는 수증기

양을 현재의 수증기 양으로 제하
여 "비율"로 표현하는 습도가
됩니다.

(5)

말뚝 염난재

말뚝을 이용하여 온도를, 또는
한 난재이나, 낮은 온도를 제
번의 편미해서 수온 지방에서 많이 쓰
고 있습니다.

우량계(雨量計)

비, 눈, 이슬 같은 것을 재는
기계. 우리 나라에서는 구경(口
徑)이 20 센티의 둥근 통으로 만
들 것을 쓰고 있습니다.

윤량(潤量)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양면
시량(視量)을 윤량이라고 부르
며, 하늘 전체를 덮고 있을 때가
10, 10분의 5를 덮을 때가 5,
10분의 1 이하 일 때는 1이라고
부르며, (으로부터 10까지의 11
계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슬(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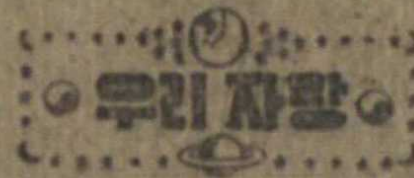
저녁이 열을 복사하여 식어 버
리고 그 온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공기의 약간 습이 노점(露
點) 이하로 내려갈 때, 그 안에 수
증기가 저들의 표면에 굳어 붙어
붙 방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골락새

조목성

조선의 자랑거리 "골락새"는 본
래 세계에서 우리 조성과 백마도
(白馬島)에만 살고 있었던 것입
니, 지금은 백마도에는 이미 말
승되었고, 우리 조성에만 살고
있는데, 이제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
는 귀중한 새다. 이 새는 딱따구
리 종류 중에서 제일 큰 종인데
그 크기는 딱따구리라고 하면
크고 귀로 볼 나뭇잎, 몸 빛은
대부분이 황색과 나는 검은 색이
다. 가슴과 배와 잔등의 아래 쪽
쪽의 날개의 일부는 일한 노란
빛이 섞인 흰 빛이다. 두둥이는
길고도 단단하여 나무를 쪼기에
적당하고 발톱은 날카로와 나무
에 붙어 돌아 다니기에 적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놈의 머리 위
에는 수놈새의 모판(毛冠)이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새는 지금
부터 60 여년 전에 영국 사람 피
작아드씨가 백마도에서 처음으로
잡은 것인데, 프리스턴씨가 이것



(골락새)

를 영국 동물학 잡지에 발표한
후부터 유명하게 되었다. 또 지
금부터 50년 전까 비지아의 라
우차노스키씨가 역시 영국 동물
학 잡지에 조선에서 잡은 것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새는 나무
가 무성한 삼림이 아니면 살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수컷이 크게

이 이상이 되는 큰 나무가 아니
면 구멍을 뚫고 동지를 들지 않
는 까닭이다. 그 성질은 지극히
민첩하고 날에도 어수룩할 삼
림 중에서 이곳 저곳으로 날아 다
닌다. 이 새는 흔히 초봄 날과
모슬비가 오는 날 또는 안개가
된 날 이른 아침에 먹물 것을 찾
아 돌아 다니며 낮에는 쫄쫄한 곳
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나와간다. 이 새의 식물은 나무
껍질 속에 있는 각종 벌레 종류
이다. 본래 이 새는 큰 나무가
무성한 삼림 속에 한하여 살고
던 지방으로 날아 갈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는 말뚝이
적은 곳으로 이 새가 살고 있는 장
소도 이제 점점 있고 현재 조선
에서는 광릉과 계성의 말뚝 사
이에만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수
도 극히 적다. 그러므로 광릉과
계성을 "골락새"가 사는 지방으
로써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여 이
새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
리는 이러한 세계에서 유명한 동
물이 살고 있는 곳의 나무를 조
금이라도 베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어린이 한글 역사 ⑥

우리 말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이영철

당시 일부 선비들은 그 글이 순 한글문으로 되지 아니하고, 운세상이 다 같이 편백하고 떨치하는 언문을 섞어 쓸을 비방하였습니더라는, 선생은 의학 사경을 자세히 소개하려면, 첫째 그 글이 쉬워서 일반 대중이 읽을 수 있어야 할 것과, 둘째 자기의 한글 문 지식으로는 써줄 수 없다는 두 가지 이유로 그 비방을 일축 하였습니다. 도리어 순 우리 말만으로 쓰게 못함이 용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글 운동에 가장 큰 공적을 남기신 어른은 주 시경(周時經) 스승입니다.

주 시경 스승은 1876년 11월 7일 황해도 북산 빈한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1914년 7월 27일 39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조선 말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공로자이십니다.

주 시경 스승은 한글의 연구, 정리, 및 보급으로써 일생의 권력을 삼아 온갖 정성을 다하여

희생하여 일신의 피로음도 풀보지 아니하시고, 서울 안과 광물학교의 조선어 과목 교수를 역임하여, 낮은 자리가 뒤를 끊어 오셨으며, 또 한편으로 사립 교육을 목적으로 조선어 강습회를 차려, 수백의 청년을 가르치셨으니, 오늘날의 한글 운동의 아름다운 씨는 실로 주 시경 스승에게서 생겨나고 결미된 것입니다.

한글의 무용기를 거쳐 정리가 되어 서서, 한글의 정리, 통일, 및 보급을 위하여, 가장 주창적으로 활동한 것은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는 주 시경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받은 사람, 장 지영(張志映), 권 덕구(權 德奎), 이 필기(李 秉岐), 신 명균(申 明均), 김 윤경(金 允經), 이 상준(李 常俊), 이 규방(李 圭芳)…… 열 배이섯 분이 1921년 12월 30일 회합 중학교에 모여 조직한 것인데, 차차 일반 유격의 참가를 얻게 되고, 모든 사회 자층의 정진 및

활발적 원조를 입어, 활발히 한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27년 2월 10일 창간한 기관지 "한글"은 총권 10권 92호를 내고, 석재의 학정 하에 출간되었다가, 제11권 1호 (옥간호)부터 시작하여, 이제 제 12권 1호가 나왔습니다.

한글 판로 487회 기념일(1925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고, 한글 판로 490회 기념일(1936년)에는 "사경할 조선어 표준발 모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929년부터 조선어 학회 안에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여 "조선말 큰사전"을 꾸리고 있는데, 원고는 인쇄소로 넘겨가 인쇄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어서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재건 일본은 우리 말, 우리 말을 하루 말살하려고 1942년 10월 한글 연구, 보급 운동은, 조선 독립 운동회의 한 열대하여, 20여 년 동안 앞으로 음으로 문장 정리, 통일, 보급을 하여 오던 조선어 학회에 열외를 가하여, 4년 동안 회원 대부분은 말론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마침내 이 윤재(李 允宰) 스승은 1943년 12월 8일, 한 경(韓 經) 스승은 1944년 2월 22일, 조국의 해방도 보지 못하고 옥중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조선"의 유래

조선이라 함은 땅이 동쪽에 있어서 날이 선 적 햇빛이 맨 먼저 뜨는 곳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본래는 우리

옛 말로 "췌"이란 말과 "선"이란 말을 합해서 "췌선"이라고 하면 것이니, 뒤에 한자가 들어 오며 소리와 뜻이 비슷한 하림조(朝)자와 함을 선(鮮)사로 쓰게 된 것

입니다. 그리고 조선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자제하는 말 수 없으니,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 즉 우리 나라가 생길 무렵부터이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란서 동화

표마 노인 집 잔치

안 응 밀 편

1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머니가 표마 집의 살고 있었습니.

서 문들은 일제일 어떻게나 사신심이 많고, 온갖한 사물들을 만들어내듯이 표마 주웠던지, 나승에는 아주 가난했이가 되고 말았습니.

이제 이 문들이 가질 것이라고는 아주 없어 딱진 조그마한 정한 지, 조그마한 의상간에 들러 있는 딱 걸어 딱진 나귀 한 마디, 온갖의 조그마한 땅 한 지, 나무 장과 조그마한 살작 한 지, 그리고 온갖의 조그마한 상조 한 표마 뿐이었습니. 아, 문 있을편 하였습니: 문들 밑에 석유 세 방울이 남아 있었단요.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그 문들은 언제나 명랑하게 지냈습니. 사실, 할머니가 좋은 지냈는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

그러나 세상행복(幸)이 지나가 버가 짧아지고 첫 수확가 막과 있었습니.

하루 저녁은— 그것은 바로 11월 8일이었습니— 정안이 감감하고 으스스 수렸습니. 표마 할아버지는 눈이 나쁘기 때문 에 문들이 있어야만 전문을 뒤졌

는데—하고 생각하였습니.

수확을 볼지 마는 표마 할머니는 문을 좀 띄웠으면 하였습니.

표마 할아버지는 문을 북이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중이마 이마를 딱 부어졌습니. 그래서 그는

“어보, 마누라, 문들을 좀 띄워요.” 하고 말하였습니.

그러나 표마 할머니는 그 까미, 한 손을 표마 할아버지 북이마 정어 넣었더니 그는 차거워서 편 령 뛰었습니.

그러니까 표마 할머니는 말하였습니.

“어보, 영감, 불이나 불 피구

미.”

그러나 그들은 조그마한 장작 개미와 석유 세 방울을 아끼느라고 문을 띄울 생각도, 문들을 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

그 때는 이 문들도 좀 슬픈 생각이 들어서 일제일제 자미에 들었습니.

한 사이에 심한 비파람이 불었습니. 차미한 비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머니는 팔이 길아 붙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팔과 붙어 깨졌습니.

“누구요?” 하고 표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

“길 잃은 나그네 들시오. 그거 사람 하나 살머는 셈으로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머니는 침대에 끼 뛰어 세며, 길 잃은 나그네 들렸하 들었습니.

길손의 옷은 “포르르 젖고, 이는 딱딱 마추렸습니. 표마 할머니는 문들을 열고 팔을 가지미 뛰어 갔습니.

표마 할아버지는 장작을 가져미 나무 장으로 닫미 갔습니. 나그네는 말하였습니.



★나의 소학생 시대★ ①

한 학생이라면 열 네 살에 졸업하게 되어 요새의 소학교 졸업장과 비슷했지만, 배제는 어디서는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다가 열 다섯 살 이상이나 되어야 입학한 것이었으니, 그때의 보통 학교 학생 중 소학생이라면 열 살에서 스무 살도 넘는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 한문 공부를 많이 하고 입학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소학교에서는 주로 가르침받는 것이 일 본 말이었으니, 한문으로는 선생님 같이 되는 나이 많은 학생들도 일본 말을 할 때 배운 어떤 학생 앞에서는 필필이었다. 그때에 공부 잘 한다는 것은 일본 말 잘 하는 것이니, 학교의 성격이란 것도 희망된 오늘날의 학교 성취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해는 매년 봄마다 금줄 두른 모자를 쓰고 금빛 울린 관을 차고 다니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일학생을 모집하러 다니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같이 여섯 살 때쯤부터 서당에 입학하여 한문을 배웠는데, 내가 여덟 살 된 봄에는 학교에를 가고, 짙은 마음이 생겨서 생도 모집으로 온 보통 학교 선생에게 청원해서 뽑히려고 하다가, 나이가 부족한 탓으로 떨어졌다. 그 이듬해 봄에는 꼭 들으려고, 이번에는 아홉 살 된 나이를 열 살이라고 속이고, 뽑혔다.

그때부터, 나이를 속이고 입학했던 관계로, 열 세 살의 졸업할 때까지 의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중세 입학한 이듬해엔저, 담임 선생님께서

(22 페이지)

“나는 먹고 싶지도 않고, 물은 절정과도 없고, 또 내 신문은 포켓 속에서 잘 죽이 되어 버렸으니가 등불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제발 잠이나 자게 해 주십시오.”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머니는 침대를 이 손님에게 내 주고 의양간으로 가서 나귀하고 함께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그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주부의 뜻뜻한 침대에 들어가 몸을 녹이지 않았더라면, 나는 병이 들었을 겁니다. 두 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서, 어찌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미장이 두목이니까, 다 쓰러져 가는 두 분 집 대신에 새 집을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이튿날부터 이 길손은 많은 직공을 데리고 와서, 얼마 안 있어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늙은 나귀가 들어 있을 의양간도 하나 지었습니다.

3

이리하여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머니는 훌륭한 집을 가지게 되고, 그 분들의 나귀는 훌륭한 의양간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는 아직도 작은 방 한 개, 조그마한 장작 한 개, 조그마한 초 한 토막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 참, 잊을뻔 하였습니다. 등잔 밑에 석유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방을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머니는 석유 두 방을 아끼느라고 어둑어둑하기만 하면 자리에 들

었습니다.

그런데 하룻 밤은 “자밤 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곧 침대에서 뛰어 내리, 옷도 입는 등 마는등 소파 나는 쪽으로 달려 갔습니다.

구원을 청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수였습니다. 자동차는 거꾸로 박히고 운전수는 차 속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머니는 갖은 예를 다 써서, 운전수를 차 밖으로 끌어 내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표마 할머니는 등불을 켜고 작은 방을 가지러 뛰어 갔습니다. 표마 할아버지는 나무 광으로 장작을 가지러 달려 갔습니다.

불을 켜고 다음에야, 그들은 옷을 고쳐 입을 틈이 났습니다.

자동차 운전수는 땀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만, 불은 기분 좋게 켜졌습니다. 장작개비가 다 타고 나니가 운전수는

“불을 좀 더 켜졌으면 좋겠는 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표마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며 말하였습니다.

“나무가 이젠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수는 부르짖었습니다.

“아아니, 그럼 장작이 한 개밖에 없는 걸 저 때문에 피우실군요! 가만히 계십시오! 두 분의 은혜를 저버릴 제가 아니올시다. 저는 난방 장치(暖房 装置)를 하는 난방 직공이올시다. 이제부터는 두 분이 노무지 출지 않으시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을 켜고 운전수는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직공들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는 벽 난로(壁爐)에 피울 장작과 석탄이더 불 피우는 원장까지

가지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곳에서 물을 떠면 온 집안이 떨
게 되는 장치도 하여 놓았습니
다.

4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
는 그 훌륭한 집안에서 도둑지
수질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
나 조금도 작은 땅 한 개하고 조
그마한 양초 한 토막 밖에는 없
었습니다. 참, 석유를 또 잊을편
이었습니다. 이제는 등잔 밑에 한
알을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
다.

석유를 아끼느라고 그들은 담
이 위에 오를 적에 자리에 들었
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밤에 길에서
“도둑야! 도둑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벽에서 뛰어 내려가 바르
게 옷을 반쯤 걸치고, 나막신을
아무렇게나 신고, 꼬마 할아버지
와 꼬마 할머니는, 소리가 나는 쪽
으로 뚫달음질을 쳤습니다.

그것은 돈이 잔뜩 든 가방을
가진 나그네였는데, 도둑놈들이
그를 붙잡고 돈을 떼앗으려고 하
던 것입니다.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는

무기도 없고 또 기운이라고는
한푼어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뛰는 바람에 길
에서는 나막신 스텐이 요란스런
게 났습니다.

도둑놈들은 경관들이 오는 줄
알고 도망하였습니다.

길손은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두 분은 내 돈을 구해 주셨
고, 또 목숨까지도 전저 주신것
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집으로 왔
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남은 무성계
한 일이 없는 꼬마 할아버지는,
도둑놈들을 겁나게 한 것이 퍼 좋
아서, 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등불이
꺼졌습니다. 나그네는 말하였습
니다.

“담프에 석유를 쳐야 되겠습니
다그리.”

“이제는 석유가 한 방울도 없
습니다.” 하고 꼬마 할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아직 조그마한 양초 한 토막
이 남아 있다우” 하고 꼬마 할머
니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촛대를 가지며 가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길손은 그를 말렸습
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분을 위해
서 일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는 전기 기사(技師)입니다. 벽에
물이 환하게 쬐지도록 해 드릴
터입니다. 그리고 양초 토막은
잘 잔직해 두십시오. 소용될 때
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다음 다음 날 길손은 일꾼
들을 데리고 와서 밤마다 전등을
달았습니다.

5

“꼬마 할아버지와 꼬마 할머니
는 이제는 뜻뜻하고 환한 훌륭한
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장에는 작은 땅 한 개 밖에는 없
었습니다. 아, 참, 또 잊을편
하였습니다. 양초 한 토막을 아
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등을
을 환하게 쬐는데 양초 토막은
두어서 무얼 할니까? 나 걸으면
내버렸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땅을 무척 아꼈습
니다. 왜 그러나 라면 땅을 새로
사 오자면, 그걸 살만한 돈을 장
만하기에 힘이 들었기 때문입
니다.

하루는 점심을 먹고 보니, 땅
부스러기 밖에는 남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배가
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부스러기랑 두었다가 저녁
때 스오프를 만들시다.”

그런데 땅 부스러기를 모두 주
웠을 뒤에, 조그마한 노랑 새 두
마리가 문지방에 내려 앉았습
니다. 그것은 새장에서 빠져 나온
카나리였습니다. 카나리들은 배
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쩍! 찹! 찹!” 하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먹물 것을
달라는 말입니다.



표마 할아버지는 즉시,
"우머, 저녁에 먹으려면
빵 부스러기를 씹어다."
하고 말하니, '표마 할아버지
는

"나도 그렇게 하려는 참
이라우."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표마 할아버지가 빵 부스
러기를 세들에게 나눠 주
니, 세들은 맛있게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에 빵집 말
이 문득 들어 왔
습니다. 이 카
나리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 세들
거기서 다시
찾게 되어서,
여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카나리들은 빵 부스러기를 다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좀 더 먹었으면 해요." 하고
빵집 말이 말하였습니다.

"더는 없라우." 하고 표마 할
아버지는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습
니다.

빵집 말이 보니까, 과연 환장
은 뿔 피어 있습니다.

그는 피를 땅에 흘리며 울었습
니다.

그는 세들 물집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돌아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가자마자 이리저리하
였다는 말을 주옥 아뢰지께 하였
습니다.

빵 장수는 제일 '누런 빵을 하
나 굽아서, 즉시 표마 할아버지
와 표마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며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우머 집에서
만드는 빵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을 장수시켜 먹 드려겠습니다.

그걸 거절하신다면 나는 성을 낼
테야요."

6

이제는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명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들을 자랑
하고,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자기에
일처럼 기대하였습니다.

하루 저녁은 표마 할아버지와
표마 할아버지가 저녁을 대접하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초대장을 받아 오니까 집이
너무 좁아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자기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복집 주인은 은으로
수놓은 훌륭한 양복을, 구두 장
수는 반짝반짝하는 훌륭한 구두
를, 여관 주인은 로즈수와 레몬
수플, 식료품 장수는 설탕과 커피
를, 과자 장수는 과자들, 농사
하는 집 주인은 신선한 배와
제이르를, 고깃집 주인은 양의

갈비를, 돼지 고기 장수는 조끼
이지와 햄을 가져 왔습니다.

나는 마이올린을 잊지 않고 가
지고 갔었지요.

집 안은 아주 혼잡하고 전광은
조그마한 해 같이 환하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 앞에 사
터들을 잡았는데 필안간 정전(停
電)이 되어서, 물이 딱 끼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이 점점 질척이
되니까, 모두들 웃고 떠들기 시
작하였습니다.

그 때에 표마 할아버지는 말하
였습니다.

"자! 보세요, 양초 드락을 두
걸 켜줬지요."

그리고 양초에 불을 켜줬습니다.
조금 뒤에 전등이 다시 켜졌습
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을 먹었습
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아이들은
내 마이올린에 맞추어서 춤을 추
고, 그 다음에는 드락 클럽으로
모두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커라 미커라 미
커! 어! 참 좋다." 이렇게 노
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 왔습
니다.

—끝—

註1. 제성검대—가톨릭 교회에
서 모든 성인(聖人)을 공경하는 관
습. 11월 1일.

註2. 빅 난토—시향시 정지
백에 붙여서 만든 난토.



엘프레드 왕과 거지

이 양 하 편

한때는 폐인 사람들이 엘프레드 왕을 그의 왕국에서 찾아낸 일이 있었다. 그때 왕은 오래 동안 어떤 강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숨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었다.

하루는 왕과 여왕과 심부름꾼 하나를 데 놓고 섬 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갔었다. 섬은 매우 오직 한 곳이 되어 버린 듯이 보이지 않는 강 수가 없었다. 점심때를 하여, 한 조그마한 거지가 왕의 문장 때 와서 밥을 달라고 하였다.

왕은 심부름꾼을 불러, 집에 남아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다만 한 조각의 빵과 약간의 술이 남았을 따름이옵시다." 라고 심부름꾼은 대답하였다.

왕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이 불쌍한 사람에게, 남은 빵의 반과 술의 반을 주라고 명하였다.

심부름꾼은 왕이 명하시는 대로 하였다. 거지는 왕의 뜻을 고맙다고 치사하고 가던 길을 갔다.

오후에 고기 잡으러 갔

던 사람들이 돌아 왔다. 그들은 세 배에 그득 차는 고기를 잡았었다. 그리고 섬에 온 이래 이래까지 잡은 고기보다 더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사되었다.

왕은 기뻐다. 그리고 왕과 모든 신하들이 천대 없이 피망에 넘었다.

밤이 되어 왕은 오래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날 생긴 일을 생각하였다. 이윽고 왕은 해와 같이 커다란 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빛 한가운데는 검은 머리의 노인이, 손에 책을 펼쳐 들고서 있었다.

한 글이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왕에게는 평생의 일이 생각이 되었다.

"너는 어떤 사람이나?" 고, 왕은 그 노인에게 물었다.

그 노인은 말하였다.

"내 아들 엘프레드야, 용기를 내라. 나는 오랜 너한테서 내가 가졌던 음식의 반을 얻어 먹은 사람이다. 기운을 내고 기뻐하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폐인 사람들이 물게

보다할게 각지를 세 번 물라. 아홉 시까지면 오백의 군병이, 싸울 준비를 갖추고 네게 모여 들리라. 용감하게 진전하라. 그러면 한 주일 이내에 너는 싸움에 지시 물러가고, 너는 내 나라를 돌아 와, 평화롭게 내 나라를 다스리게 되리라."

그러고는 빛이 꺼지고 그 사람은 간 곳이 없었다.

이튿날 아침, 왕은 일찍 일어나 본로도 진이 섰다. 그리고는 보다할게 세 번 각지를 물었다. 왕의 군병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폐인 사람들은 무서워하였다.

아홉 시에 왕의 가장 용감한 오백의 군병이 싸울 준비를 하고 모여 들었다. 왕은 그들에게 곧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은 크게 말세를 부르며, 그들의 힘 미치는 때까지 왕을 따라 싸울 것을 맹세하였다.

그러고 그들은 용감하게 나가 싸웠다. 그들은 폐인 사람을 이기고 국경 밖으로 물러 갔다. 그리고 엘프레드 왕은, 죽을 때까지 백성을 현명하게 잘 다스렸다.

어린이 새소식

웃음과 희망에 가득찬

두번째의 "어린이 날"

5월 5일! 이날은 1년에 한 차례밖에 없는 우리 조선 어린이의 명절이다. 와아.....우리와 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만세 소리도, 노래 소리, 조그만 어깨를 걸고 불그스름한 얼굴을 쳐다보고 두 손을 높이 5월 주름 하늘에 휘두르며 뛰치는 어린이들의 기세! 이 날 선을 서내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이들의 명사와 글자가 환란하게 벌어졌었다.

★

서울 창경원 안 넓은 들에서는 "어린이 날 전국 준비 위원회"와 "서울시 준비 위원회" 주최로 어린이 날 축하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개식자로 시작되어 애국가와 "어린이 날 노래" 합창이 있은 후, 어린이 대표의 선서문 낭독과 여러 선생님들의 간곡한 축사가 있었다. 만세 삼창으로 식이 끝나자, 야외 무대에서는 인형극, 동화, 춤, 노래 등으로 창경원 안은 온종일 화기 가득 즐겼다.

★

이날 덕수궁 안에서도 "서울 유치원 연합회" 주최로 "어린이 야유회"(野遊會)가 열렸다. 회장에는 안 민정 장관과, 길 시장도 어린이들과 같이 이날을 축하하고 즐거워하셨다. 어린이들은 천진 찬란한 아름다운 세계를 만

습껏 꾸미고 노래 불렀다.

가득하고 아름다운

"술치 학교" 동무들의 정성

강원도 영월 장일초 술치 학교(松峙 學校)에서는 지난 5월 1일, "가없는 전계 동포들에게 전액 주십자"고, 돈 359 원 50 권 (108 원 50 권은 화랑단원들이, 251 원은 어머니 강습회원들이)을 아동 문화 협회로 보내 왔다. 보내 온 글을 읽어 보니, "주간 소학생" 41 호에 난, 가없는 "전제민 수용소 방문기"를 읽고,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정교물끼리 의논하여 모아 보낼 것임을 알았다. 서희들도 꿰어준

모부실을 끌고 다니면서 아끼고 모아서 보내 이 돈! 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마음! 여러 동무들, 다 같이 이 글의 학교 동무들의 가득한 마음을 생활하자!

성대히 끝마친 노동자의 명절

"메이데이"

해방 후 두 번째의 "메이데이"를 맞이한 5월 1일, 우리 조선은 노동자의 수평한 만세 소리로 뒤덮였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일본의 갖은 구박을 용서하지 말아 온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수평한 아우성 소리는 조선을 학로하며 온통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그리고 성원한 평화를 세우자는 부르짖음이었다. 그날 서울에서 벌어진 "메이데이" 광제의 광경 몇 가지를 알려 드려기로 한다.

★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기념 대회는, 여러 단체와 많은 노동자들이 모일 가운데, 이 순환 기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의미 심장한 축사가 있었다. 그러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선 말 큰 사전"에 모은 말수는 약 30만, 세계에 들어가는 그림 수가 약 6천이나 되는데, 이것을 6 권으로 나눠 을유 문화사(乙酉 文化社)에서 세기로 되었다. 그 첫째 권은 올 9월까지의 나오며라 하는데, 이것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으로 나오는, 가장 크고 가장 충실한 조선 말 사전으로, 세계를 자랑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문화의 자랑인

★조선 말 큰 사전★

해방 시대의 그 모진 탄압을 무릅쓰고 벌써 30 여년 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은 고생과 희생을 들보지 않고, 오로지 이 나라의 말을 지키며, 단결같이 가난과 탄압 속에서 애쓰고 싸워 주신 조선의 학회 여러 선생님들의 피땀물로 만들어진 "조선 말 큰 사전"이 드디어 이 세상에 나올

고 이어져 만민에게 보내는 "세계지" 낭독, 해외 권익론 낭독이 있을 때, 오우 내 서장이 날의 기념식을 순조롭게 끝냈다.

★

남산에서 열린 기념 행회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수 십만명 모인 가운데, 해외 각기 제양, 백국가와 "케이케이"의 노래 경창이 있을 때 이 일종(李 仁宗)씨의 개회사가 있었고, 허 현(許 顯)씨로부터 축사한 말씀이 있었다. 그 다음 김·소 공동 위원회를 발의 다시 일어 달라는 경과 보고가 있었고, 박상장(朴 尙章) 회장에게 보내는 축사와, 김·소 양국 천수(天壽)와 하계(夏 啓)에게 보내는 "세계지"를 권익하고 이어 지어주는 어음과, 음악이 있었다.

5월 20일 다시 열렸다

미·소 공동 위원회

삼천원 가량이 파장이 기다려 고 기다리면 "미·소 공동 위원회"는 본회의에 1년만에 드디어 열렸다. 지난 5월 21일, 양기포 운 파란 일고 하계 전 하한 아래 서울 덕수궁에서 두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이런에는 반드시 조선에 통일권 임시 정부를 세우자"고 결단으로 자선 만민에게 말씀을 하셨다.

우라도 이런에는, 작년과 같이 의회가 결성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보하여 꼭 성공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학생 작품 모집”

소학생 여러 분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문, 풍요, 일기 등, 무엇이든 보내 주십시오. 관련된 것은 "소학생"에 넣고 또 상도 드립니다. 마감은 없으니 언제든지 보내십시오. (편집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애독자 위안 상라기 문제

(첫째 문제) - 한글 바로 쓰기

(다음 글에 맞춘 밑줄이 세 곳에 있으니, 틀린 데만 고쳐 쓰라.)

스어머니들은, 첫째로는 마음이 곧아야 하고, 둘째로는 참을성이 잇서야 하고, 셋째로는 끊임없이 공부할 해야 하며, 그리고 늘 희망을 갖어야 합니다.

(둘째 문제) - 의견 보기

북남이는 올해 열 네 살 된 소년인데, 아버지께 자전거를 사 습시사 하였더니, 아버지께서는 "네 나이가 네 나이의 세 글(3 배)이 될 때 사 주마" 하셨습니다. 북남이 아버지께서는 올해 천이십입니다. 그러면 북남이가 자전거를 얻게 되려면 몇 살이 되어야 합니까?

이상 두 문제를 조그만 종이에 간단히 대답을 써서 보내십시오. 두 문제 다 맞춘 분에게 아래에 적은 것과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보낼 곳) 서울 鍾路 二街 永保會館 朝鮮 兒童 文化 協會 "소학생" 編輯部

(기한) 같은 6월 25일까지 도착하도록

(참고) 소학생 8월호

상 품

1 등, "학생 조선어 사전" 한 권씩, 다섯 분.

2 등, "그림 예기적" 한 권씩, 열 분.

이상과 같은데, 이것은 맞춘 분 중에서 재피 뽑아 정하겠습니다.

(주의할 것) - 보내는 사람의 주소, 학교, 학년, 이름을 꼭 꼭히 쓸 것. 단 한어만 한 학교, 또는 한 동계에서 여러 사람의 것을 같이 몰아서 한 봉투에 넣어 보낼드 상관 없음. 상품은 8월 15일까지 보내 드림.

소년 소설

자취기

박철



재어진 자기 요강이 글러
있는 도람 양저 딱대 누대기
가 널려 잔공일 켈릭입니다.

그 밑에서 수동이와 기동
이가 자취기를 합니다. 기동
이가 움푹하게 파 놓은 구멍
에 자취기 딱대기 작은 것을
가로 놓고, 그 사이로는 긴
것을 두 손으로 움켜 잡고,
허리를 꾸부러 앞을 보고 있
습니다.

“해?”

기동이는 금방 긴 딱대기
를 쳐볼 듯이 자세를 취하
며, 큰 소리로 쉼니다.

“해!”

수동이기도 큰 소리로 쉼
니다. 그리고 봉제기할 때
처럼 두 팔을 벌리고, 움푹
들어 간 구멍 쪽을 바라보
입니다.

이윽고 기동이 가 긴 딱대
기를 번쩍 쳐들입니다.

작은 딱대기가 꾸웅 댔습
니다. 수동이 가 금히 그것을
받으려고 쫓아 갑니다. 기동
이는 가슴이 조파조파합니
다. 수동이 가 받으면 열 자

를 쫓던데 딱
맞기 때문
입니다. 그러
서 눈이 봉그
데 바라보너
다.

그러나 작
은 딱대기는
수동이 손에
잡힐 듯하
다 떨어질너
다.

기동이는 그

제야 안질한 듯이 손에 붙었
던 긴 딱대기를 움푹 들어
간 구멍 뒤쪽에 가로 놓
습니다.

“이런데는 수동이 가 작은
딱대기를 이 밑으로 걸려
됩니다. 그러나 구멍 앞
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
서 수동이는 다시 뒤로 나
섭니다.

“때르우 때르”

기동이는 왼 손에 작은 것,
오른 손에 큰 것을 걸다
고 이번에도 아주 큰 소리로
쉼니다.

“그대 해! 때르 받으면
서른 자야 서른 자!”

수동이기도 이번에는 꼭
잡을 듯이 말합니다.

“아냐, 스무 자야. 때르가
서른 자야!”

“오래 마른 자야!”

수동이 가 더 안다는 뜻이
우칩니다.

“아냐, 오진 서른 자야!”

기동이기도 지지 않고 우
칩니다.

“그대그대, 때르 받으면

스무 자 자야!”

수동이 가 또 한번, 이번
에는 꼭 잡을 듯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때르 받으면 스무 자야?”

기동이는 또 다시 단단히
마음을 받으며, 왼 손에
붙었던 작은 딱대기를, 오른
손에 긴 딱대기로 “딱” 걸
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수동이는
잡지 못했습니다. 기동이는
정말 때르를 치는 사람처럼
긴 딱대기를 들며보고 쉼
니다. 수동이 가 다시 작은
딱대기를 걸려 받습니다. 그
렇지만 작은 딱대기는 이번
에도 구멍 앞쪽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기동이는 급히 뛰쳐 나와
작은 딱대기가 떨어진 곳에
서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기동이는
수동이 가 더 악이 호르호르
일부러 큰 소리로 쉼니다.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쉼니다.

“열 다섯 자야. 열 다섯
자! 수동이는 서른 자
야?”

기동이는 구멍 앞에서 서
편도 크게 쉼습니다. 수
동이는 아무 대답도 없습
니다.

“오려다, 오려 해?”

“해!”

기동이 가 움푹 들어 간 구
멍에서 작은 딱대기를 받
이 넘어 놓고 긴 딱대기도
오직 작은 작은 딱대기의
머리를 딱 쉼니다.

작은 막대기가 모퉁이처럼
정말 짭컌 맛있습니다. 기봉이
가 꿀떡, 솟은 밥을 건 막대
기도 또 한 번 맛있게 먹습니다.
이런 때는 아까보다 더 멀리
나갔습니다.

수봉이 귀 옆으로 살짝 지
나 갔습니다. 수봉이는 고말
이 인색으로 할지 못했습니다.
기봉이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열 여섯, 열 일곱 세
기 시작합니다.

수봉이는 기봉이처럼 흥에는
모양을 끌고
머리 파마로
고 썼습니다.
서론 하나,
서론 둘, 서
론 셋입니다.
"서론 셋과
다!"

기봉이는
입이 더 커지
며, 식걸, 꿀떡
을 할로 저우
면서 조술 따
치 고개 써
놓습니다.

"해?"

기봉이는 또마서 아까처럼
큰 소리로 씹습니다.

"해!"

수봉이도 아까처럼 큰 소
리로 씹습니다. 수봉이 얼굴
은 빨갛습니다. 기봉이는 싱글
벙글 하면서, 마서 아까처럼
허리를 꾸꾸리고 큰 막대기
를 막 쳐들어 할 대입니다.

"자작기 나무 데 나무..."
저 편에서 장순이가 소리
치고 뛰어 옵니다.

"자작기 나무 시켜 나무..."
노마도 장순이처럼 소리
치고 뛰어 옵니다.

기봉이가 들짓 입수로 소
리 나는 편을 바라봅니다.
수봉이도 편같이 바라보네
다.

그러나 장순이를 바라보
면, 수봉이도 기봉이도 씹잡
이 놀랍니다. 장순이가 씹을
입과 넣고 아가죽거리고 있
기 때문입니다. 아주 맛있는
것고 있습니다. 손에는 씹을

가, 노마가, 수봉이가 더 먹
고 싶어 하라고, 일루머 미
맛있게 씹게 씹습니다.

수봉이가 또 입을 엽니다.
"어디서 왔니?"

"한길에서 왔어?"

"얼마나?"

"삼 천야."

"어유, 삼 천."

수봉이는 씹과 놀랍니다.

노마도 기봉이도 놀랍니다.

"그까짓 삼 천이 뭐 많아?"

더 비싼 것도 있어."

그리고 장순
이는 입에서 씹
던 씹을, 입 밖
으로 길다. 팔개
고루 흘려줄 눈
입니다.

주욱 풀이났
던 씹을, 도로
입 속해 넣고,
또 아가죽거리
고 씹습니다.
수봉이, 노마,
기봉이가 더 먹
고 싶어 하라고
일루머 미맛있
게 씹습니다.

"나 조끔만 씹."

기봉이가 씹을 끝까지 삼키
면서 입을 엽니다. 그러나
장순이는 못 들은 척하고 그
데로 맛있게 씹습니다.

"그거 서양 편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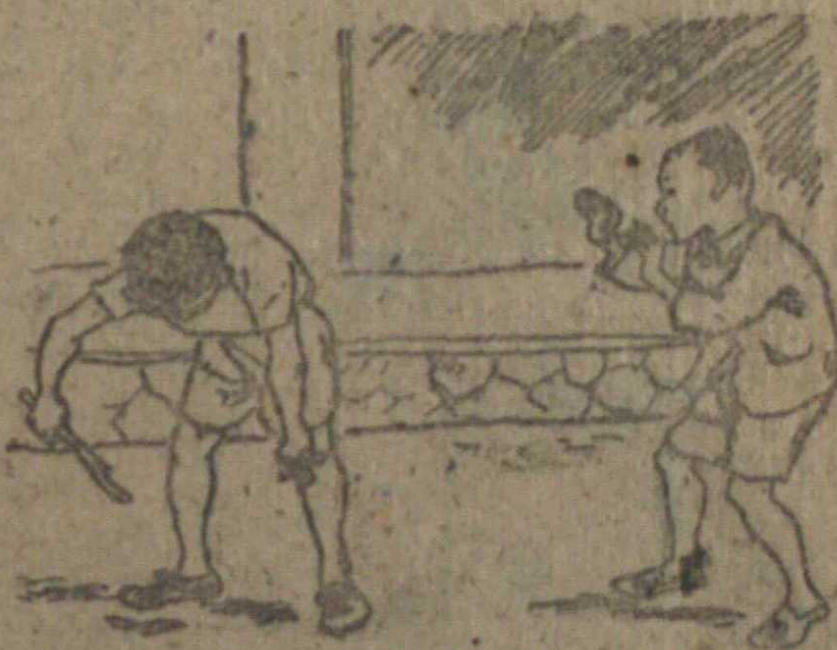
"그럼."

"한길에서 왔느냐?"

"그럼."

포속한 입을 하고, 장순이
는 씹을 온따만 먹습니다.

그 할때 수봉이, 노마, 기



왔던 노마도 편한 씹이를 손
잡이와 함께 쥐고 있습니다.

그 할때 수봉이도 노마도
기봉이도 할 없이 보고만 있
습니다.

마침내 기봉이가 입을 엽
니다.

"맛있어?"

"그럼."

"마나?"

"그럼."

그리고 장순이는 기봉이

★나의 소학생 시대★ ④

판트가 되어 아버님께서 그 선생에게 정을 해서 양해를 구하였었다.

42세의 수업료로는 매달 월 사금으로 5 전씩이었는데, 그때의 명면 할 그릇 값이었고, 그것도 내가 입학하는 해부터 시작 한 것이라 그전까지는 없었던 것이었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이 조선을 먹은 후에는 조선 자판에게 일본 말도 가르쳐야했고, 또 조선 사람의 마을도 자야했으므로 갖은 수단을 다 쓰던 방법 중의 하나 이었다.

그러나 내가 2년생 때의 3월 1일, 따뜻하고 맑은 날, 대한 독립 만세의 소리가 거터에서 들리 오자, 보통 학교 학생의 우리 조선 어린이들도, 다 뛰어 나와 시위 행렬에 참가하였던 것이었다. 나는 이 사건에 자극되어, 졸업하고는 조선 정신을 넣어 주는 술실 중학교를 위해서 입학했었다.

머리 땀고 학교에

조선어 학회 이 극로

경상 남도 의령 고을은 나의 조상 때로부터 사백 여년을 살아 오던 고향이다. 나는 할 남매의 끝으로, 위로 형님 다섯 분과 누님 두 분이 있었었다. 내가 나서 자라난 곳은 의령 고을 동쪽 끝으로 낙동강 가에서 한 5리쯤 되는 곳에 있는 들설 (楸谷) 이라고 부르는 농촌이다. 그래서 이 낙동강 가의 들에서 농사를 짓게 된다. 내가 살던 마을에는 저당이 있어 현문을 읽는 사람이 많아서

(31 페이지에)

용이는 말 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있다 옛 사 준다고 그랬어."

노마가 그까짓 서양 편은 맛 없다는 듯이 입을 씩습니다.

"피, 그까짓거 우리 아버지 있다 또르케르하고 서양 사랑 사 준다고 그랬는데 뭐."

"그까짓거 뭐 맛있어? 옛이 더 맛있지!"

"또르케르, 서양 사랑이 더 맛있지?"

장순이는 수동이 기봉이를 바라보고 물습니다. 그러나 수동이라도 기봉이도 말이 없습니다.

"옛이 더 맛 있지?"

노마도 지지 않고 수동이 기봉이에게 물습니다.

"그럼 옛이 더 맛 있지!"

수동이라도 기봉이도 노마편을 드는데 장순이는 놀랍니다.

"그까짓 옛이 뭐 맛있어?"

장순이는 그만, 설을 달곤 합니다.

"그럼 그까짓 편이 뭐 맛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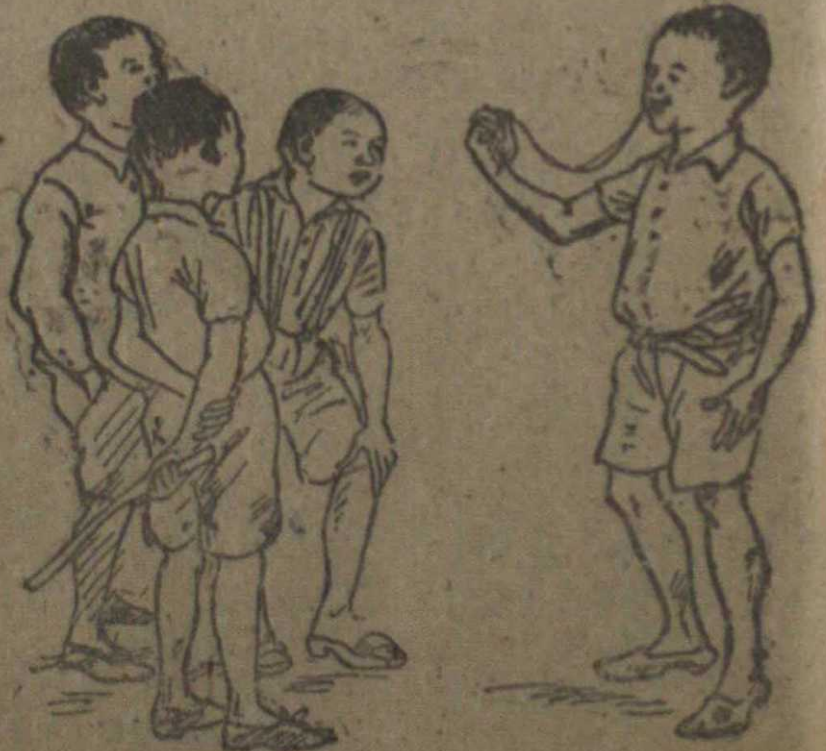
"그럼 그까짓 또르케르가 뭐 맛있어."

"그럼 그까짓 서양 사랑이 뭐 맛있어?"

수동이라도 노마도 기봉이도 이렇게 썩치고 저 편으로 말아냅니다.

장순이는 한참이나 물끄러미 그 편을 바라보고, 편을 썩던 것도 잊어 버리고 있습니다.

저 편에서는 다시 수동어, 노마, 기봉이들이, 작치기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 왔습니다. (그림·정 현웅)



즐업식노래

白石重直作曲
文教部制定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

졸업식노래

尹石重 詞 李 亨 律 習 曲

빛깔 있 - 나 는 물 업 작 물 따 신 행 날 배
 알 - 있 - 거 라 동 생 어 어 경 등 교 실 아
 다 발 물 한 - 아 물 선 시 할 시 다
 선 리 생 녀 저 의 물 나 시 러 감 시 다
 우 리 나 라 질 며 지 고 나 잘 우 리 다
 불 러 발 은 책 - 오 모 공 부 불 하 매
 내 지 사 람 히 어 배 우 로 열 품 자 라 서
 우 - 리 는 책 날 뒤 물 따 보 보 려 니 다
 새 나 라 의 새 날 꾸 어 따 보 보 려 나 다
 우 리 를 도 이 - 달 며 다 시 면 나 다



(계 학생)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형님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물려 받은 책으로 공부들 하며
우리는 형님 뒤를 따르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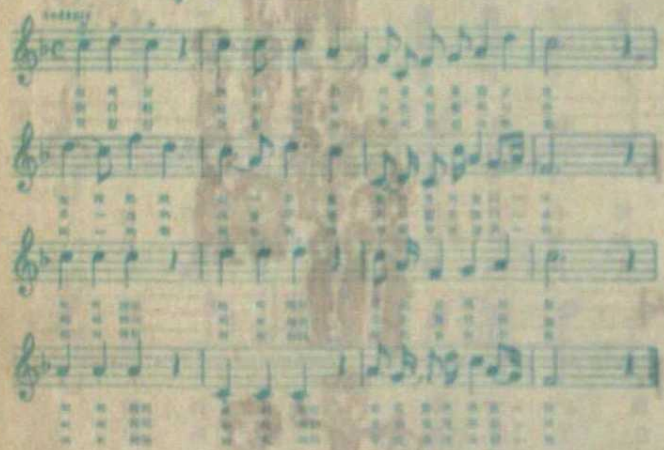
(졸업생)

잘 있거라 동생들아, 정든 교실아,
선생님 저의들은 물려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일른 자라서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마 함 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우리 나라 질머지고 나갈 우리들
내스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담에 다시 만나세.





아협어린이의 노래

정경애 작곡 ★ 김성환 작사

이 세상 어린이가 서로 손을 잡으면,
노래하며 지구를 돌수가 있다네.
씨. 씨. 에이. 씨. 씨. 에이. 우리들의 아협,
씨. 씨. 에이. 씨. 씨. 에이. 우리들의 어린이.

커다란 낙타라도 어린 맘을 지나면,
조그만 바늘 구멍 지나갈수 있다네.
씨. 씨. 에이. 씨. 씨. 에이. 우리들의 아협,
씨. 씨. 에이. 씨. 씨. 에이. 우리들의 어린이.

이 강산 어린이는 우리 조선 새 싹들,
비 바람 치는 속에 무럭무럭 크거라.
씨. 씨. 에이. 씨. 씨. 에이. 우리들의 아협,
씨. 씨. 에이. 씨. 씨. 에이. 우리들의 어린이.

★ 아협은 조선아동문화협회를 줄인 말.
★ 씨. 씨. 에이. 씨. 씨. 에이.는 아협 어린이를 줄인 말.

임자

선생님주소 ★ 동우들주소

1946



졸업을 축하한다

을 이름에 국한 학교를 졸업하는 여러 어린 공부생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오랫동안 정들은 학교를 위로하고, 가르침을 받아 온 선생님을 댔을 줄여 서서, 한 자리에서 공부하고 놀던 공부생과 작별하는 자장에는, 이별하기 서러운 눈물이 아예 나올 수 없으리라. 그러나 오늘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 분은 얼마나 기다렸으며, 또 여러 분의 부모님은 얼마나 고대하셨던 것이냐? 그 기대하시는 모습이 눈 앞에 서신다.

어머 분이 앞으로 바쁘게 하고, 일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다. 앞 날이 험악하고 겁이 뭉겨 숨을 느낀다. 그렇지만, 어머 분이 지금까지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보오만 믿어 왔던 것이, 이제부터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세립 스스로 걸어갈 때가 온 것이다. 말하자면 어찌까지는 잘야 다니고 손뼉을 잡히어 걸어 다니던 것이, 이제부터는 혼자서 씩씩하게 잘야 다니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맙고 기쁜 일이나!

다른 사실보다도 더우기 여러

분에게 행복스러운 일은, 먼저도 말할 것과 같이, 앞으로 바쁘게 할 것, 일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아 왔다는 것이다. **조선**은 아직 독립도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행복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쓴바엔 일이 딱히 오대마요, 여러 불행과 같은 새 일꾼들이 졸아서 바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바쁘게 하여 다시 기운이 솟곤 한다. **조선**을 잘고 나아갈 여러 분들, 새 **조선**의 일꾼인 여러 분이, 이처럼 소양한 사람이면 이 세상에 여러 분보다 더 행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아, 어머 분, 혼자 걸어 갈 수 있는 바쁘게 아들딸과 말들하! 그들에게 빛나는 첫 걸음을 전함으로 축하한다.



큰 이상을 가지라!

삼동 국한 학교 교장

정 인 하

참새처럼 지저귀던 어린이들이 돌아!

해방 후 두 번째 졸업생이 단 영예는 그때들의 것이로구나. 너희들은 그 얼마나 크고 높은 뜻을 품고, 수석

의 국민 학교를 나서며 하고.....

환한 문화와 상스러운 면목의 전제는 그 어디로 사라졌는고? 가난과 비굴과 자란 땅밭이 이 땅에 남아

있나니, 그때들은 이 강산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걸심하였는가?

오, 그러나 어둠과 슬픈 겨울은 이미 갔나니, 뜻 키고 새 우는 새 봄도 멀지 않았으리.

졸업식 노래 * 바로잡기

행님은 선어로, 동생은 아우로, 새 나라의 새 일꾼은 우리 나라 새 일꾼으로 고쳐 불러 주십시오. 그리고 적의는 적의, 결미는 결미, 지교는 지교가 맞습니다.

말과 혀로 나무 가지를
올 오르는 소리로 들리는,
진국의 힘찬 행진 소리를 그
대들도 들겠지.

이제 어른들이 젊어서 가
버리고, 조국은 그대들의 것
이 되나니, 앞날의 주인 될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라.

큰 이상과 끊임 없는 희망

을 가려고 끝까지 끝까지 나
가다.

이 곳 저 곳 헤쳐 살며
라고, 한 마음으로 서로 들
고 천천히 지내라.

부모님과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쁠 때나 슬퍼
할 때나 생각하라.

2. 뜻을 이루자. 첫 학교에
간 사람이니, 학도 일을 하
게 된 사람이니, 뜻을 이루
는 길은 다 같다. 뜻을 이루
기 위하여 피로운 것을 삼
는 사람이 되어 한다.

3. 남보다 잘라자. 질서있
게 위생을 잘 지키고 모의침
이 많은 국민이 되자.

4. 과학적 실천 생활을 하
자. 미신을 잘 버리고, 우리
의 생활 개선에 힘써, 문명
인의 한 사람이 되자.

5. 모교를 사랑하라. 6. 빈
궁한 자라난 모교의 명예를
위하여, 같은 모교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라이더.

졸업생에게 ⑤

앞 길은 멀다

장년 국민 학교 교장

안 설 규

제군은 입학 이래, 공부에
잘 힘써 이 먼 국민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을 나는 제
군의 부모와 함께 기뻐하는
바이다. 그러나 제군의 앞
길은 멀다. 이제부터 정돈
학교와 선생님의 앞을 떠나,
중학교에 입학하여 일층 공
부에 힘을 사관도 있고, 혹
은 곧 사회에 나가 직접 전
선에 서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 같은 조선 새 나
라의 일군으로, 힘 있게 사
취 일에 쓸 줄도 믿는 바되
다. 그러므로 제군들의 책임
은 크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해방 후 두 번째의 졸업인만큼,
더 한층 8월만 우리 겨
례는 그대들에게 바라는 바
가 크다. 그리고 다음 몇 가
지 부탁을 하겠다.

1. 공부에 힘쓰자. 여가를
이용하여 책을 부지런히 읽

어서 우리의 문화를 빛내자.

졸업생에게 ⑥

활발한 사람이 되자

최화 국민 학교 교장

윤 정 석

이 먼 국민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나 일반 사회
로 나가, 세 출발을 하게 되
는 여러 분들에게, 다음 몇
가지를 전심으로 부탁하고
싶다.

첫째로, 책임감 있는 사람
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유
제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요
구할 것만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자. 큰 자
를 일으키면 작은 일이 되고
지켜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과학에 대한 생각
을 고쳐야 하겠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과학에 대해서 열심성이 없
었다. 과학을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
나 우리가 훌륭한 나라를 세
우려면, 또, 석양에 앞선 나
라를 세우려면, 과학
에 대한 참다운 뜻을 깊이
배달고 위기를 걸어서, 더욱
더욱 과학 공부에 힘 써서,
우리 조선을 과학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셋째로 우리 스스로가 "우

선생님도 자꾸만 오라구요,
 동무들도 꼭 다니라구요,
 순이는 목이 막혀 말도 못하구,
 고개만 숙으려고 옷고름만 만지적.
 정다운 학교도 그만 두고,
 남의 집 야기 보기 어떻게 하나?
 순이는 하 서러워 말도 못하구,
 가여운 얼굴에 눈물이 글썽.



(그림·김 의환)

이 거에는 훌륭한 전례가 못
 된다." 하는, 자기 자신을 알
 잡아 보는, 그러한 못난 생
 각을 버려라. 우리 나라 사
 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에
 미해서, 조금도 못났거나,
 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우리는 어느 나
 라 사람들보다도 큰돈을 벌
 고, 슬기로운 머리를 가지고
 있다. 저 울퉁 달라온 선수
 가 이 린제 미국에서 우승하
 기, 세계의 체육가들을 놀라
 게 한 것을 보더라도, 힘을
 쓰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결
 격으로 서양 사람들까지 뒤
 쫓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
 서는 안 된다.

내 때도, 시간을 아껴 쓸
 하는 사람이 되자. 시간을
 아껴 함으로써 무시편한 사람
 이 될 수 있고, 훌륭한 동무
 일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결사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문명국의 사
 람일수록 시간을 지키고 시
 간을 아껴 쓰는 사람들이야.
 우리 조선 사람들도 미 많은
 일을 하고, 더 좋은 과학의
 나라를 세우려면, 3천만 모
 두가, 이 시간을 지키고 시
 간을 아껴 쓰는 것을, 하루
 가지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랑하고 활발
 한 사람이 되자. 우리 조선

사람은, 근 40년 동안이나
 외사슬에 얽매어, 저속 생활
 을 해 온 관계로, 내개는 마
 음이 어둡고 활활하지 못하
 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를지
 기 활활하고, 명랑하고, 슬
 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 "수
 문 안의 지구리"가 되게 말
 고, 모든 나라의 문화를 팔
 아 들여, 활리판되. 우리가
 "약소 민족"이란 부끄러운
 이름을 잊어 나서 세계의

남 조선 중등 학교 수 (1947.5.1)

	서울시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강원	모두
남양	15	15	9	3	33	10	10	7	3	1	113
여중	10	5	8	9	10	5	6	3	0	9	76
남남	1	10	13	10	3	10	7	9	3	13	119
중남	7	1	1	2	2	2	3	3	0	1	19
상남	12	3	1	3	3	3	1	3	0	1	39
수남	0	1	0	0	2	0	1	0	0	0	4
육남	0	1	0	0	0	0	1	0	0	0	2
기타	5	0	0	0	0	0	3	4	0	0	12

모든 앞 선 나라들과 같이 어깨를 겨우고, 활개치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

도록, 힘겨운 공부와 힘겨운 일을 일심히 하여 주기 바라 는 바이다.

과학의 어미를 가졌음은, 선민의 문화, 고도의 문화, 그리고 근세 조선의 문화를 배운 어미 문은 무엇이 인식하고 자랑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급 살고 있는 우리는 찾아 내어, 온 세계에 애국기와 함께 휘날려야 하겠습니

졸업생에게 ①

책임은 무겁다

덕수 공립 국민 학교 교장

서 형 호

여러 분은 해방 후 두 번째 졸업하는 빛나는 졸업생입니다. 여러 분의 앞 날의 찬란한 빛과 훌륭한 성공이 벌써부터 환히 내 눈 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조선은 만만 년의 긴 역사가 있고, 눈이 부실 듯한 문화가 있으며, 땅은 비록 넓지는 못하나 아름답고 기품진 강산, 그 속 그 위에 끝고루 빠짐 없는 밀천, 그곳에 꽃핀 순후하고 질박하며, 제주 같은 우리 민족, 모두 이것이 내 것이면서도 단복중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땅에 더구나 새로운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힘찬 걸음을 내 디딘 이 때, 졸업의 기쁨을 차지한 여러 분의 행복이야 다시 말과 글로 어찌 나타내겠습니까?

이렇듯 힘껏 일할 수 있고, 힘껏 믿을 수 있는 때에 졸업하는 여러 분은 행복된 반면 남달리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이따 깨닫고, 새로운 줄은 결심과 포부를 안고 교문을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예의가 바릅니다. 나라에 충성하며,

우모하게 모도하고, 웃어온을 공경하며, 도의와 믿음으로 원수와 서로 사접이, 우리 조선 사람의 핏속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온 세계에 가르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 자기만을 위한다는 것이 옳지 못함을, 우리는 이 정신을 북돋워 주어야겠습니다. 또 우리는 남달리 뛰어난

어미 문, 일 번 넘어지면 일 번 씩 일어나는, 굳센 의지와 용기로서, 애국기를 높이 들고, 왕복하고 빛나는 앞 길을 바라보며,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적적하게 굳세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앞 길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의 있고 슬기 있는 여러 동무들이여, 힘차게 굳세게 나아갑시다.

못하고 지방자에게 ①

돈이나 부모보다 제 힘으로

최문 중학교 교장 박 술 음

욕망 가운데 배수꼴다는 것처럼 가혹하고 고마운 욕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뜻이 개인을 발전 시키고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당국자들은 지방하는 여러 분들을 모두 입학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가난한지라 학교 수료는 적고 지

방자는 많으니, 일을 공경하게 하기 위하여 선발 고사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합격자를 발표할 때마다 불행한 어떤 학생들과 함께 우리는 울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이 비극은 다시 일어날 것이외다. 생존 경쟁의 쓰라린 맛을 어렸을 때

맛보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 분에게 증명합니다. 나
만 바라기는 어차피 피하지
않을 일이라면 용감하게 나
아가 승려자가 되도록 하십
시오.

중학교는 6년 동안 고등
교육 정도의 학문을 닦는 곳
입니다. 돈을 상당히 써야
하고, 집안 사정이 허락하여
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하
고, 몸이 견디어 주어야 해
야 나갈 수 있습니다.

상업, 농업, 공업 같은 과
목을 많이 가르쳐, 졸업하자
마자 그 방면의 대학에 갈
수도 있지는 대개는 실지
로 일할 수 있는 학생을 기
르는 실업 중학교가 있고,
교양을 본위로 대개 장래 대
학 입학의 목적 삼는 인문
중학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그 두 종류 학교 가운
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고사하는 방법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는 하
나, 대체로 국민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여러 분의 지능이 어떠한가,
라시 말하면 이 앞으로 공부
해 나아갈 정신과 소질이 알
마나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아
직까지의 고사 문제가 생각
대로 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은 소경이 경을 읽 듯이 외
서 가치고 그대로 써 내고,
얼마 지나면 잊어 버리는 따
위의 고사법은, 여러 분의
지능 정도를 알아 내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국민 학교 과목을
잘 알도록 힘 쓰며, 중심을
고과서에 두고, 평상시에 늘
공부해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짧은 시간에
고사하는 것만으로는, 여러
분의 실력을 알아 내기에 충
분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
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
러 분을 가르치신 선생님의
소견표를 우리는 참작하고
싶습니다.

구술 고사는 여러 분이 암
전한가, 특특한가, 인물이 어
떠한가, 집안 사정이 공부하
기에 적당한가, 이러한 것들
을 두루 살피려는 것이요.

신체 검사는 공부와 운동
에 몸이 적당한가를 보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분의 부족한
점을 찾아 내어 자주 떨어뜨
러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저
것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모
로 살피어 좋은 점을 여러
분에게서 많이 찾아 내어 좋
은 점 많은 분에게 중학교
공부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
니다.

부모가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서, 집에 돈이 많다고 해
서, 여러 분이 부족하여도
그 세력으로 입학 되리라고
는 생각하지 마시오. 자기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되고,
자기가 못하면 부모가 대신
할 수는 없는, 새 세상인 것
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소학생 시대★ ⑤

집안에 선비가 적지 아니하
였지마는 내가 자랄 때에는 정
안 살림이 넉넉지 못하여, 농사
를 지어서 최우 살아 가게 되었
다. 그러므로 일곱 살 때에 서
당에 들어 가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온전히 글만 읽
을 형편이 못 되어서, 소도 익
히고 지계를 지고 풀도 다루도
메고, 김도 매고 모도 심고, 바
도 베고 방아도 찧고 절전도
삼고, 이런 일 제편 일 다 하
게 되었다. 그러나 틈틈이 도
는 특별히 겨울 할 조금 한가
한 절의 시간을 이용하여 관문
자나 배운 것이 쉬운 글이나
듣어 보게 되었다. 이리 저리
일을 하여 먹고 지내노라니, 어
느덧 나이가 열 다섯 살이 지
내었다. 이 때에 나는 동방에
오는 신문물을 늘 읽어서 세상 소
식을 조금 알게 된 것이 나로
하여금 맘에 아무도 모르게 노
망을 쳐서 육십 리나 되는 만
산 향구로 가서 거기서 예수
교회에서 경명을 하는 참신(信)
학교에 들어 가서, 품은 머
리를 짝 깎아 버리고 입학을
하였다. 그러나 빈 주먹으로
들어 간 것이다. 며칠 뒤에 참
안에서 알고 찾아 와서, 머리를
이 떨어졌다. 그러나 끝끝내 나
는 버리고 그 학교에서 이해
동안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쓸
돈도 없을 뿐 아니라, 환고한
가정의 양해를 얻지 못하여, 끝
고학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입단과 영신환 약 봉지를 들고
이 집 저 집 돌아 다니게 되었
다. 그 뒤 나는 돈 한 푼 없이
걸어서 만주 서간도로 가서 조
선 소학교 교원 노릇을 하였
다. 그러나 공부를 더하고 싶
은 마음이 물길 같아 일어나서
도 돈 없이 걸어서 서베리아
지리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학비를 빌려고 농가의 여습살
이를 1년 동안 하였던 것이
다.

새롭고 또 새롭게

명성 여자 중학 교장 허 하 백

사람은 새 해를 맞이하게 될 때, 새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이, 새움의 길에 있어서도 한 학교를 마치고, 웃학교로 올라 가려는 여러 분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피하여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웃학교에 가려는 생도들 중에서 아무런 새 생각도 나지 않고, 새 생활을 하여 보려는 결심과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전취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으니,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라고, 매일 매일을 자기의 할 바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마는, 보통 사람들은 매일 매일 살림살이에 얽매이고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날 그 날의 살림살이를 다시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잘못됨을 고치고 또 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희망 속에서 살아 가는 것이다. 희망 속에서만이 힘이 생기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니, 그곳에는 힘 씬이 있고, 피어 나감에 있으며, 뜻 있는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말하여 줄 것은, 여러 분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탓으로, 여러 분 중에는 웃학교에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무질 여러 분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여서 여러 분은 불행한 그 동무들의 향교자 하는 일까지 하여야 하겠다는 깨달음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원의 이상은,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꼭 같이 조선에 참다운 민주 교육을 실천 시키므로써 조국의 자주 독립에 이바지 하자는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주 학원은

선생과 학생사이의 감정의 원수와 같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언제나 서로가 정화스러우며, 명랑한 가운데서 진리(眞理)를 배우고 찾아 내는데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때야 할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원에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 많다.

우리는 학원에서도 참된 자유를 실천하고 남의 자유를 잘 존중하는데도 언제나 반성하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언제나 진리를 바로 알고 싶어 하고 또 깨 내려고 하는 여러 분은, 먼젓사람들의 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 놓고 좃아 갈 것이 아니다. 잘 살펴 보아서 좋은 것만을 본들만한 힘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여야지만 사회는 발달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웃학교 지망자에게 ③

선택은 처지와 능력대로

중앙 중학 교장 심 형 필

먼저 여러 분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 분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잘 참아 가며 꾸준히 노력을 쌓은 결과도 이 번에 졸업할 시켜 되는 것이니, 얼마나

기뻐한 일입니까? 이것은 여러 분의 훌륭한 성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문의 진을 생각할 때는 여러 분은 이제 겨우 고부망 고개의 마루턱에 올라 온 셈입니다. 아직도 여러

취해 되는 가운데 봉우리가 있고, 그 취해 가까웠게 솟은 상상봉이 있습니다. 여러 분은 지금 새로운 봉기를 내어 가지고, 장차 가운데 봉우리를 올라하고 상상봉까지 정복을 하고야 말겠다는 장대한 결심으로 중학교를 지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장한 생각이라고 나는 무한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이 모처럼 중학교를 지방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몇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학교를 지원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같은 길이면 좋은 학교를 지방하려고 할 것입니다마는, 옳다 나쁘다 하는 판단은 경솔히 할 것이 아닌 줄 생각합니다. 학교의 선택에 대해서는 자기의 처지와 능력과 목적을 아울러 생각해서, 가장 적합한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하여야 옳을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여러 분이 학교를 선택하는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의견과 담임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요, 또야 좋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한다 해서, 자기도 그러고 한다고 때로집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공부란 욕심으로도만 되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기엔 적당한 사람만이 공부하고 부적당한 사람은 공부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는 학교 공부란

아니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며, 또 이 앞으로는 사람의 자질을 학문이 많고 적은 것으로 따지지는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는 곧 해 가지고도 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입학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학 시험을 앞 두고 특별 준비를 한 사람만이 유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랄해 당해서

는 학과 성적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로 재학 시래서 성적이 우량한 사람도, 만일을 생각하여 무 학교 이상을 지원해 두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 두고 부형들이 학교의 선생들을 방문하여 부탁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까지, 여러 분 자신만 상당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 무심시오. 다만 시험 시기에 신채택 고장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만 규

미국에 에버슨은, 학교때를 두 주일 밖에 아니 마셨 습니다. 일 주 할 때부터 정 거장에서 신문을 팔면서, 몸뚱이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연구하여 전신 기수가 되었고, 잇대어 연구하여 전등을 발명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 발명하여 돈도 일천억 불 가깝게 모았 습니다.

또한 언방 어떤 공화국 학교에서는, 학급마다 농업 실 습지를 따로 주어, 성적을 경쟁 시켰는데, 한 여 학생이 자기 반 동무를 데리고

열심히도 농사를 잘하여 일 동상을 땀습니다. 그 여 학생은 졸업한 뒤에 재 지방에서 농사를 하여, 농민을 인도하고, 농촌의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여 학생은 그 지방에 이름이 높이나서 인민 위원회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중앙 인민 위원이 되었는데, 나이가 스무 살이 못 되었음에도, 인민 위원의 직분을 가진 채 나라에서 대학 공부를 더 하게 하였습니다.

스위스의 루소는 시계 봉

인척 아들로 나면서 곧 어머니가 죽고, 집이 가난하여서 한 군데 밭을 붙이고 있을 수 없는 가여운 생활을 하였고,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의 집 하인으로, 신문 배달부로, 상점 하인으로, 변호사 사무원으로, 남의 집 가정 교사도, 돌아 다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끝 혼자 공부하여 유명한 "민약론"이란 책과 "애밀"이라는 책을 지어, 자유평등 사상과, 자유 교육 정신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있는 때까지 영구히 없어지지 아니할 이 몸을 끼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선 회담 선생은 집안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밭에 가서 나뭇을 팔았으며, 공부할 때에 젊은 일이 많았습니

다. 선생은 곧 선생해게는 얼마 때수져 않고, 작기가 혼자 읽고 혼자 연구하였습니다. 너무 공부를 몹시하여 병이 나서, 부어, 행 앓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혼자 한 공부도 다른 학자들이 말 하지 못한 "물질 불멸론" (한번 생긴 물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말하여 세계에 자랑할만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역사에서 찾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름이 나지 않고도, 한 나라 한 시골에 이름 난 이로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이가 수부룩 합니다.

이와 같이 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이, 또는 소학교만 졸업한 이, 또는 혼자 공부한 이 들이, 큰 학자도 되었고 큰 돈도 모은 것을 보면,

젊은 학교에서 공부한 이 만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이름을 난 사람이 꼭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농부로서 농사하여 작기와 물포가 될 수, 양식을 만드는 것이나, 한 노공자가 되어서 작기와 물포가 될 물품을 만드는 것이나, 한 사무원이 되어서 작기와 물고들이 사는 나라 일을 하는 것이나, 무엇이냐 남을 위하여, 나라를 돕는 일에 충성과 열심을 다하여 양심을 속이지 말고, 부지런히 하여 몸을 세움으로 작기가 이 세상에 떨치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학교에 가지 못 한다고 낙심하거나, 슬피하지 말고, 농촌에서 농사를 하거나, 공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어떤

졸업하는 언니에게

교동 국민 학교 7의 5

진 정 섭

이른 봄을 장식하는 개나리가, 온갖 꽃 중에도 제일 부지런히, 예쁜 모양으로 봄 소식을 알려주니까, 여러 꽃들은 봄오리 속에서 개나리에게 인사하는 듯이 랑긱랑긱 웃으면서, 귀를 이어 활짝 피는 꽃들은, 서로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산들산들 봄 라담에 나무끼고 있습니다.

봄은 아마 하늘님이 우리들 언니에게 마음껏 공부하고

또 힘차고 굳세게 뛰어 놀라고 보내시는 선물인가 봅니다. 그런데 첫 이름이 되면 내나 제 일 좋아하는 몸과 함께 최상급 생 6학년 언니들은 매년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십니다.

그 언니들의 모양은 꼭 봄과 같이 희망에 넘치고 씩씩합니다. 아마 언니들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시는 선물보다도 중학교에 입학한다는 기쁘신 마음에, 마음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많은 지식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저렇게 씩씩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5년 동안이나 우리 상급 반

으로 계시며, 우리들의 잘못을 꾸지람도 하지 주시고, 또 다 같이 배우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시면 언니들과 잘라지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언니들이 어서 중학교에 입학하고 또 졸업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아니라 외국 유학까지라도 하시어, 하루 속히 우리 나라에 빛을 쬐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정**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시는 언니들이나 우리들도, 다 같이, 우리 새 나라를, 우리들 작은 손으로 건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더 배우십시오.

동요 오리 권례응

둥둥 엄마 오리
못물 위에 둥둥

둥둥 애기 오리
엄마 따라 둥둥

바람은 술술
물결은 살살

퐁당 엄마 오리
못물 속에 퐁당

퐁당 애기 오리
엄마 따라 퐁당

얼굴은 축축
햇볕은 쨍쨍

(그림 · 권례응)



사무 보는 곳에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맡아 가지고, 거기
에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지식은 먼저 국어를 많이
공부하여 글을 읽는데, 서투
르지 않게 하고, 강의록이나
새 상식책 필요한 글을 자주
읽어, 아는 이가 있으면 업
적을 무릅쓰고 묻고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지런히
하면 배우 있는 이는 반드시
발명가나 학자나 정치적인

물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
하여도 자기 개인의 생활이
나, 한 시골, 한 지방의 지
도자는 넘치며, 될 것입니
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건
문이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 특별히 우대 받게 되지
않고, 농민과 노동자와 사무
원과 다른 월급쟁이가, 다
같은 나라의 일꾼으로도 똑 같
은 대우를 받을 만수 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직업에
높고 낮은 생각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지 작은 데서부터

충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
여, 거기서 공을 쌓으면, 경
우에 따라서는 높은 학교를
마친 이보다, 더 훌륭한 사
람이 됩니다.

어라 동무들은 미국 에디
슨의 생활과, 조선 어떤 농
촌 어 학생의 견학과, 스위스
루소의 부지런과 우리 나라
서 화담 선생의 자학(제 훈
자 배우는 것) 정신으로 각
자 일터에 가서 일을 하십
시오.



졸업생 좌담회

모인 동무들

- 광선 학교 배 준호 (남)
- 광선 학교 장 무숙 (여)
- 덕수 학교 윤 승진 (남)
- 덕수 학교 김 정수 (여)
- 혜화 학교 정 순일 (남)
- 혜화 학교 손 용임 (여)
- 수송 학교 허 용 (남)
- 수송 학교 배 옥걸 (여)
- 제봉 학교 문 영 (남)
- 제봉 학교 김 순 (여)

사 회

서울 중앙 방송국 민 재호

★

"소학생" 편집 주임 심 언정

"소학생" 편집 기자 박 경을

★

1947년 5월 10일

아현 회의실에서

인사 말씀

심 선생 어머 분 오시느라 고·수고를 하셨습니다. 저 음부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졸업생 좌담회"를 열게 된 것은 여러 분들이 6년 동안이나 배우던 정다운 학교를 먼저 떠나 졸업하게 된 데인데, 졸업을 앞 두고 장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를 들으자 하는 것이니, 민 선생님의

발씀에 따라 주저하지 말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 선생.....

민 선생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는데, 이 좌담회에서는 피었고, 훌륭한 대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언니나 동무들 끼리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묻는 말에 대답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말을 해야 해요.





손용임

허용

배옥경

문영

김순

어느 학교를 지망하는가?

민 선생 자 그럼 이제 여러
군은 얼마 한 있으면 모두
중학교나, 여학교를 가겠
는데, 어디 군은 어느 학
교를 가고 싶어요?

배 옥경 저는 경기 고녀가
가고 싶어요.

민 선생 왜? 다른 학교로
않은데.....

윤 승진 저는 경기 중학이
가고 싶어요.

민 선생 이 윤 승진 군은
어디 군이 할 말씀에서 들
은 "물론이치 모험"에 물
론이치 나오는 공문에 아
주 꼭꼭한 공물입니다. 그런
데 지금 배 옥경 양은 경
기 고녀가 가고 싶다고 그
리고, 또 윤 군은 경기 중
학이 가고 싶다는데, 경기
고녀나 경기 중학 밖에도
학교가 많은데, 왜 꼭 그
학교만 가고 싶습니까?
그 까닭이 있을 텐데?

윤 승진 경기 중학은 역사
가 깊고, 또 저희 집은 아
비지 할아버지가 모두 경기
중학은 나왔기 때문입니
다.

민 선생 다른 사람들은 어
떻게 생각하나?

손 용임 농담이나 사담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윤 승진 저도 같다고 생각
합니다.

해방 후 겪은 제일 기쁜 일과 슬픈 일

민 선생 그럼 다음으로 가
서, 어디 군이 해방 후에
겪은 일 중해 무엇이 제일
기뻐있고, 또 무엇이 제일
슬펐습니까?

장 무순 저는 한글을 배운
것이 제일 기뻐있고, 미군
이 철수했을 때 우리 조선
아이들이 미군을 따라 다
니며 "할로" "오케이"라
면서 끝이나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슬픈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김 순 38 선이 막힌 것이



가장 슬피요.

김 점수 물습 경보사이연도
안 풀고 망풍호해도 뛰어
들어 가지 않게 된 것이 제
일 기뻐요.

허 용 지금 조선은 우리 손
으로 모든 물건을 생산해
내지 못하고, 물가는 해방
전의 몇 배 배나 올라서
모두 살기가 어렵게 된 것
이 제일 슬픉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한글과 우
리 역사 같은 것을 마음
놓고 배울 수 있게 된 것
이 제일 기쁉니다.

윤 승진 조선 사람에게 기
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
건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
니다.

허 용 지금 조선에서 물건
이 생산 안 되고 있는 것
은 기술 부족보다도, 모리
배들이, 있는 기술까지도
감춰 두고, 일부러 나쁜
물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점수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민 선생 들이 다 좋은 말입
니다. 허 용 군은 아주 어
른 같은 말을 하네요.
(웃음소리) 그럼 지금 허 군
이 "모리배"라고 말을 했
는데 모리배는 어떤 것을
모리배라고 하나요?

허 용 남은 어떻게든 제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장사치를
말합니다.

배 준호 민족의 이익을 배
반하고 처만 잘 살려고 하
는 사람들을 모리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말을 외국어
로 써도 좋은가?

민 선생 일본 말을 하는 사

말들이 아직 많은데, 이것
은 어찌 분치럼 어떤 사람
들이 아니라, 봉구 많이
한 여학생 언니들이 미 하
는 것을 흠이 봅니다. 어
찌 분들은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찌니까?

배 옥경 알만 일본 말이라
저만 외국어도 쓰면 되잖
아요.

문 영 우리는 재능들의 압
박을 받고 태 왔는만큼 왜



놈들에 대한 미운 생각이
다 없어진 다음, 장차 20
년이나 30년 후에는 그걸
외국어로 쓰는 것도 좋겠
다고 생각합니다.

배 <옥경 그렇지만 압박을
받았다고, 말은 상관 없잖
아요?

장 무숙 말은 사람의 태도
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재
능들의 말을 그냥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일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 옥경 그것은 그 때에 우
리 조선 사람들이 어찌서
잘 못해서 나라를 빼앗
기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수리가 잘하면

그만 아네요.

윤 승진 말이란, 그 나라의
정신이 들어 있는 것이니
까, 우리가 일본 사람이
남기고 간 전적지를 없애
기 위하여는 일본 말을 배
서는 안 될 줄도 생각합
니다.

민 선생 나도 지금은 없겠
다가 다시 새 정신으로 연
구하고 쓰는 것이 좋겠단
고 생각합니다.

백 선생 내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일본 말을 쓰는 사람
들은, 그것이 외국어도 생
각하고 쓴다는지 하는 것
이 아니라 모두가 그 일본
말에 꼭 들어 맞는 조선
말을 모르기 때문에 일본
말이 하기 쉬우니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니까 먼저 우리 말을 배
워서 어떠한 말이라도 모
르는 말이 없도록 해 놓아
야 할 것입니다. 조선 말
모 모르고 외국어를 할까
든지, 일본 말에 꼭 들어
맞는 조선 말을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때에 일본 말
을 쓰고 있다든지 해서
안 된 것입니다.



처음 본 태극기

민 선생 일본 말을 “고꾸교”라고 공부할 때 “오라가 처음으로 한글도 배우고, 우리 말도 노래도 부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은 어땠었나?”

장 무숙 저는 우리 한글이 말할 수 없이 훌륭한 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김정수 갑자기 한글을 배우고 학교에서도 마을 대로 우리 말을 쓰게 되니 어쩐지 좀 이상한 생각이 났어요.

윤승진 첫시간에 “가” “나” 을 배우게 되니 선생님에 대한 원필감이 전보다 몇 갑절 났습니다.

배 옥경 처음에 어머니하고 거처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좋아서 다니는 것을 보고 의 기쁘기는 했으나, 노래하고 모두 “아리랑” 같은 유행가 뿐인데, 남의 나라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노래만 남았구나 하고 생각하니 슬펐어요.

배 준호 저는 그때 국기

제양대에서 태극기를 보았으나, 처음에는 그게 무슨 건가 하였어요. 알고 보니 우리 나라 국기라고 해서 꽤 기뻐했습니다.

허 몸 글과 말을 마음 대로 배우게 된 것이 꽤 기뻐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한쪽 다리 공부

민 선생 그러면 이 때에는 학교서 공부하는데 일제 시대와 지금과 특히 달라진 점은 없나요?

장 무숙 일제 시대에는 선생님이 생도들을 이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생도들 자신이 공부해 나아가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허 몸 지금은 한 문제를 아이들이 먼저 연구하여 나중에 선생님이 해주시고, 정 모르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배 준호 학우회라는 것이 새로 되어, 각반에서 대표를 내서, 생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 선생 정 순일 군은 가만

히 있는데, 어디 말해 봐요.

정 순일 / 전에는 역사면 역



사만 되었기 전에는 때문에 해석하기가 쉬었는데 지금은 모두 소설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 해석하기가 힘들더군요.

윤승진 저희 학교에서는 교과서는 그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집에서 미리 연구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배 준호 선생님 말씀에 일제 시대에는 가르치기는 많이 가르치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건 모두 한쪽 다리 공부를 해서, 실지로 실험을 못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써먹지를 못 하였다고 합니다. 한 편 미국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안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자동차 같은 것을 고공을 줄 알고, 기계를 설명할 줄 알고, 설명은 못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고칠 줄 아는데, 우리는 공부를 많이한 사람도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배 옥경 그러나 세표가 없
어서...



민 선생 정말 그래요. 나도
친문 학교를 나왔고 또 10
년 동안이나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
더오" 하나 고칠 줄 모르
는데, 기술과 소사는 잘
고치니까요. (웃음 소리) 저
금 날으니 역시 우머는 한
쪽 다리 공부들 했구나 생
각이 됩니다. 배준호 군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잇과들 좀 더 가 르쳤으면!

민 선생 공부하는데 있어
서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좀 더 가르쳐 주셨으면 좋
겠다는 과목은 없을까요?
김순 잇과들 좀 더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승진 지도요.

허름 사회 생활과가 생겼
는데, 6학년 책에서는 지터
는 안 배우고 국사만 배우
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매
우 필요한 지지도 더 배웠
으면 좋겠습니다.

배준호 (허름 관계에) 사회
생활과 공부를 잘 하면 국

어도 산술 공부도 다 되잖
습니까?

허름 (허름 관계에) 사회
생활과에 국어나 산술이
나옵니까?

배준호 사회 생활과 책에
서 배우는 맞춤법이라든지
글 뜻 같은 것은 국어 공
부가 되고, 세게 친구 수
타든지, 면적 수타든지,
하는 것은 모두 산술 공부
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영 미술을 좀 더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입학 시험 준비에 대해서는.

민 선생 이제 입학 시험 날
자가 얼마 안 남아, 이러
분은 지금 열심히 시험 준
비를 할 텐데 어떻게 할 하
고 있나.....?

배옥경 저희 학교에서는
입만 늦어도 다섯 시까지
는 집해 돌아 가기도 되어
있습니다.

허름 입학 시험에는 과학
잡지 같은 것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교과서만 가르치니 교과서
외에 다른 책도 가르쳐 줬
으면 좋겠습니다.

배옥경 학교 선생님을 힘
이, 모자라니까 그거까지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전
제자기 공부 해야지요.

민 선생 학교에서 배우는 것
과 입학 시험에 나오는 문
제가 다르다는데, 어떤 사
람도 그렇게 생각하십니

까?

배준호 저희 학교 선생님
은 학교 공부만 충분히 하
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웃학교에 못 가더라도 학
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잘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공
부를 열심히만 하면 웃학
교에 들어 간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가 있습니
다.

허름 어에서 입학 시험에
는 배우지 않은 것을 배는
지요?

배옥경 시험을 내는 가
이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
니까는, (모두 웃음소리)
작년엔 화도 쉬울 것도 없
우려 까다롭게 문제를 내
서 못 쓰게끔 하니, 어
서 그렇게 열까요?

배준호 그건 일부러 경
을 시험에 보느라고 그래
지요. (웃음 소리)

허름 한문자 같은 것이
쉬어 나오는 것은 좋지 않
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준호 그러나 한자만
을 말으니라 편해 없잖
요?

문승진 어려운 한자 같은



짓은 안 나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많은 원자를 고쳐 주고 싶어요.

늘 부엌 속에서만 살고, 좋은 구경이 있어도 남자는 혼자만 자잖아요. (모두 웃음소리)

민 선생 그 얘기는 그만 하고 나라를 위하여 장차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 말해 봅시다. 누구나 좋은 일을 하고 싶겠지만……



민 선생 매우 좋아요. 꼭 대동명이 해야 합니다.

허름 저는 과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에 가서 과학 공부를 많이 하여 공학 학사가 돼서 돌아와 우리 나라의 공업을 발전 시킬 생각입니다.

장 무슨 저는 과학 공부를 하여 유수의 부인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허름 그렇지만 해방후 남니 동동이마고 어떤 여자들은 놀이에도 놀아 다니며 놀기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남자가 뭐라도 볼지 않고 도리어 대동명하는 여자도 많던데요. (모두 웃음소리)

민 선생 꼭 학사가 돼야 하나? (웃음 소리)

민 선생 유수의 부인의 어떤 점이 좋은가요?

배 옥경 그건 더러 그런 사담이 있지만 보통 조선 가정을 보면 대동명도 그렇잖아요.

허름 (턱걸이 풀이되면서) 아 네요. 기술을 많이 배우라는 말입니다.

장 무슨 어려운 집에 처어나 외국까지 가서 가난과 싸우며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한 점이 좋아요.

아우들에게

배 옥경 저는 정체가 되려고 합니다. 자갈 우리 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은 훌륭한 정체가 없는 까닭이니까, 공업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정체를 먼저 잘 해 놓으면 자연 말할 수 있습니다.

배 옥경 저는 지금까지 조선에서 남자가 여자를 알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자 대동명이 돼서 (모두 웃음소리), 여자를 알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요. 꼭 대동명이 안 돼도, 조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일을 하고 싶어요.

민 선생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끝내겠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아우들에게 남겨 두고 싶은 말을 간단히 한 마디씩 하여 주십시오.

손 용임 저는 정체나 과학보다도 먼저 공덕심을 길러야 될 줄 압니다.

배 옥경 에의를 잘 지켜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 순일 저는 모든 방면에서 외국에 과학, 정체를 같은 것을 정확히 알려 우리 나라에 소개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을 발전 시키고 정체가 잘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민 선생 어떤 것이 그렇게 알보는 것일까?

손 용임 정체가 더 힘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김 점수 저는 의사가 되어

배 옥경 동네서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여자는 바른 말을 해도, 남자는 그저 막 논르기만 하고 야단을 치잖아요? (모두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는



김 점수 서간과 약속을 잘 지켜 달라고 말하고 싶

이요.
 문 영 상급생은 하급생을 사랑하고 서로 좋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단 성결 사상을 잘 길러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배 준호 공동 정신을 잘 진리 주기를 바랍니다.

김 무순 우리 나라 고지를 사랑하라는 것과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일에 참아 나아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 순일 "깨끗하다" "부지런하다" "약속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꼭 지켜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허 용 우리는 위생 사상이 아직 부족하여, 연필 깎는 것을 그냥 교실 안에서 똑같이 버린다든지 하는 것을 서로 주의해서 한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민 선생 여러분과 이렇게 사투를 얘기 하다가는 재미가 나고 할 말이 하도 많아 말을 세워도 못하 하겠는데,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 딱강 화담화는 이만 하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말을 잘 하고 공부들을 많이 한 것을 알게 된 것을 한 없이 기뻐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초학생들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런 여러분은 우리 여러분의 그 높고 큰 희망을 꼭 이루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모인 선생님들과 여러 동부들을 다시 모아서, 오늘 이 화담회를 열자 하며 축하회를 열게 되기를 믿어 이만 그치겠습니다.

협 선생 여러분들 오랫동안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 가십시오.

—끝—



(그림 • 김 의환)



○공 부

아이지 "송남아, 너는 왜 공부는 안하고 말하러만 오니?"

송남아 "아니예요. 말하공부 따느라고 그래요." (서울 중학교 4학년)

○사 랑

미 "사랑은 왜 연기 하지?"

乙 "그것도 몰라. 한 말만 한 걸러니까 말지." (서울 중학교 4학년)

○10 원 짜리

계몽이 "어보게, 10 원 짜리 한 장 바꿔 주게."

희몽이 "그래, 저 10 원 짜리 여기 있네."

계몽이 "아니야, 1 원 짜리로 바꿔 달란 말이야."

희몽이 "응, 그러지. 마침 1 원 짜리 한 장 있네." (서울 일신초 4학년)

◎이 7월



병마개 때는 법

로르르 병마개를 때려고 하는

때 마개 때는 것도 없고 너무 꼭박해서 잘 때지지 않을 때에는 손 끝이나 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때려고 하지 말고, 그림과 같이 못 두 개를 잡고 잡아 마르면 병마개가 부서지지도 않고, 손쉽게 때집니다. 못이 아니라도 송곳 같이 뾰족한 것이면 됩니다.





정치가가 되려면

여 운형

공무들의 부질 공백은 수
없이 많고 모략도 많고 거짓
이 많고 속임수를 잘하는 이
가 정치가로서의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는지 모
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된 생각입니다. 세리 공무들
은 정세가 되려는 마음
의 몇 가지들 여러서부터 실
현하여 주시오.

첫째도 진실하십시오. 스스
로 거짓이 없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정치가가 되는데
필요적 조건입니다.

둘째도 남을 잘 아 안으시
오. 정치는 통솔 하는 것이
아니요, 대항과 함께 하는
것이므로, 아 안는 힘이 커
야 하고 못하면과 공무하는
때 재미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희생하는데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도 용감하십시오. 정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
때 가지로 이러한 일이 많은
것이므로 용감하여야 합니
다. 그러므로 공무와 놀 때
때도 그 공무들을 잘 모로하여
주고, 공무 사이때 재미가
생겨 바꾸기든 좋고 그른 것

을 가려 가며 용감히 싸워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때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째도 꾸준하십시오. 정치는
"헛"이 아닙니다. 날마다
민족을 떠 넘어나 선 단을
두고 앞선시키는 일이므로,
해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여 끈기 있게 가지고 나아
가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무슨 일때든지
이러한 꾸준한 힘으로 나아
가는 정신을 기르시오.

다섯째도 욕심을 내지 마
시오. 정치에 개인 주의나
이기 주의는 절대로 금물일
터입니다. 사사 이익을 생각하는
이는 절대로 정치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
부터 남이 가진 물건을 탐
내거나 남의 좋은 물건을 바
꿔 달라고 하는 일을 하지
마시오.



예술가가 되려면

예술, 문학 교수

김 용준

우리 나라에서는 글이나
읽고 미술이나 하는 사람이
파아, 훌륭한 사람이요, 그
힘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은, 천하게 여겨 왔기

때문에, 좋은 예술이 발달되
지 못했습니다.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의
나 다 같은 예술이요,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낮으면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것만
을 천히 여기게 된 것은, 물
론 나라의 제도(制度)의 잘못
도 있었겠지만, 음악이나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들에게도 책임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리고 하면, 미술을
하는 사람은 대개가 높은 학
문적 기초를 띠지 않고, 유
구불구한 그림 쪽이나 그리
는 것을 능사(能事)로 알았
으며, 음악을 하는 사람도
학문과 높은 교양(敎養)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팔리
다니면서 노리나 재주를 돈
으로 바꾸어 팔거나 했지,
예술가다운 생계를 못했습니
다. 그러니까 자연 지식 있
고 인격 있는 사람들에게 천
대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
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라에 그
런 제도도 없고, 제가 천재
를 나라내이면 얼마든지 나
아날 수 있는 세상이올시다.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든지, 좋은 그림
을 그리는 화가가 되려는 사
람이든지, 또는 유명한 음악
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든지, 누구나 제 재주껏 할
수 있으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냐, 남에게 존경을 받고

혹은 천대를 받는 것이나,
다 저 하기에 달렸습시다.

화가가 되고 싶다 하여,
이런 때부터, 나쁜 공부는
일쓰지 않고, 그림만 그리
든지, 또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하여, 나쁜 학과는
나체를 하면서도, 노래 공부
만 하든지 하는 사람은, 후
일(後日)에 커서 세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도 없거니와
좋은 그림이나 좋은 음악을
한다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
과 품위(品位)가 낮아서, 자
연 학문 많고 인격 있는 사
람들에게 천대를 받게 됩
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하면 우물 안의 개
구리와 같아서, 위대한 예술
품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이 만일
예술가가 되려면, “내가 그
림을 잘 그리거니,” “창가는
내가 적 잘 하거니,” “조선
은 내가 제일 잘 짓거니” 하
는, 교만하고 까부는 생각을
버리고, “좋은 그림이나, 좋
은 음악이나 좋은 문학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서는, 그
준비로 먼저 무슨 공부든지
열심으로 잘 배워야겠다. 국
어도, 역사도, 문상도 산수
도, 그 무엇이든 남이 할 수
있는 학문이란, 모조리 배지
않고 충실히 공부를 하여야
겠다. 그리해야 뒷날에 거기
에서 훌륭한 예술이 나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음음이 내가 좋아하
는 그림이나 음악이나 문학
같은 것은 더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
니다.



종교가가 되려면

경향신문 편집국 작자

진부 이 완성

“머리 맑고 송이나 될까로
다.”

선제부터인지는 모르거니
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말
미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세상
이 귀찮아지면 도피할 곳이
없는 줄만 생각하는 것이 마
합니다. 소위 출가(出家)하
여서 집을 떠나 산중으로 뛰
어 들어 가는 이를 종교가라
생각하는 이는 벌써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종교가가
될 생각은 억지 말아야 옳겠
습니다. 그것이 신성한 종교
계를 위하고, 아까운 인생을
헛되히 버리지 않도록 막는
것이 되는 때문입니다.

종교가가 되려는 높은 뜻
을 품고 나서는 이는, 혹은
집을 떠나고, 혹은 부모 처
자를 멀리할 지도 없지 않으

리라 믿습시다. 그러나 정
대남양정 그로라 더 크고
은 사회 안으로 새길 때
음이 가는 것을 잊어서는
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뜻을 하는 대신에, 백이
천이나 사회 전체의 어
노릇을 맡는 것이 종교가
사명(使命)인 것을 알아
되고, 또 그렇게 정말 하
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자를 굶기고, 험악
고, 온당한 교육을 갖추
주지 못하는 때니까, 아
을 인격 있는 사람으로 길
내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
열심성이 되고, 세 공
위하고, 힘함을 아끼는 등
가는, 사회의 정신 정을
도미어 가난하고 불쌍하
만들 위험성이 있지 않은
생각합니다.

평은 사람을 위해서라
희사는 참배라도 달려 가
하고, 성한 사람들에게도
강제와 예방법을 가르치
는 것이 희사의 사명입니다.
볼때 관한 한, 희사는 가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마르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야 합니다. 영의미 희사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다면, 우리 정신 정을
집 받아 줄 종교가에게는
마만큼 지식과 정력과 기
이 필요할지는 더 말할 여
도 없을 줄 압니다.

“송이 고기 맛을 알면
때도 남기지 않는다” 함

다. 돈데 눈이 뜨고, 육심과 감정에 침여하면, 종교가가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관습에 의하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라빠진 나무 불거머처럼 딱딱하고 불임성 없는 굳어버진 인간이 되라는 것도 아니겠지요. 안으로 부드러우면서 밖으로 굳고, 밖으로 부드러우면서 안으로 굳은 것이 종교가의 생활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팎으로 부드러우나, 안팎으로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육심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성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가의 수양일과 합니다.

참되고 좋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 나라 정신자는, 삼천 보리를 세우기 위하여, 참된 참된 종교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종교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재질(才質) 환경에 알맞은 사람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되어 나와 수기를 기대합니다.

서 울복 선수가, 마라톤에 세계의 모든 선수를 물리치고 우승하였다고, 조선의 젊은이는 모두가 마라톤에 열을 올리야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처럼, 땅을 지는 자가 종교가의 간판을 들고 나서는 것은 삼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가는, 천

주(天主—하느님)와 인간 사이의 사닥다리라 합니다. 인간과 사할과 동경과 속죄(贖罪)를 천주께 바쳐 드리고, 천주의 뜻과, 사랑과, 보살을 인간에게 전하여 줄,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문에 먼저 자기부터 천주를 정말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세 불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배우고 닦아서만, 비로소 종교자의 믿음직한 일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죽림 과학관 편집

조복성

과학이라는 문구는 "라틴어"에 어원이 있고, 안다는 글자의 의미를 가진 지식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과학은 경험으로 얻은 사실을 선택하여, 지식을 조직하여, 법칙을 만드는 것이 과학인데, 과학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1. 기초 과학
2. 자연 과학
3. 인문 과학
4. 신학

이 그것이다. 그리고 자연 과학 안대 물질 과학과 생물

과학이 있다. 이런 과학을 연구한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여 공적을 낸 사람을 과학자라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과학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로 연구하여야 한다.

1. 확실한 관찰
2. 정확한 생각
3. 합리적 계몽 아래서, 임식을 발견할 것.

특히 생물 과학자가 되려면,

- (가) 거짓 과학에 주의할 것.
- (나) 사람에게 질문하기 전에 자연에게 질문할 것.
- (다) 이름을 알고 하기 전에, 그 물질을 충분히 알아 둘 것.
- (르) 일시적 연구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계속하여 연구할 것.
- (리) 연구한 결과는 반드시 이것을 발표하여, 학계에 공적을 남겨 줄 것.

이런 점에 항상 주의하여, 실행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하면, 반드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죽림이 지난 봄에도 꽃은 피다.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는다. 불에 탄 흙에서도 새 싹은 난다. 우리는 늘 사람과 빛에 가득 찬 이 자연의 속사김에 귀를 기울이자!

(백이돈의 말)



제 42 회 발표
문제 • 없어서 안 될 건?

- 웃음(충남 태안고 가 계준)
- 소학생(경로로 이 풍속)
- 학교(서울 대영로 정 장길)
- 식량(서울 용산고 안 경석)
- 광남에 지방어(충남 태안고 이 화경)
- 주변(전통)(포서고 권 중학)
- 산에 나무(문암고 천 수장)
- 야유(대령고 안 가래)
- 양심(장원도 원우고 박 병 양)
- 희망(전남 순천고 이 철순)

소학생 구약부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있습니다”와 “있음너다”의 맞춤
법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알려
주세요. (서울 방
산고 고 기덕)

▲두 가지 하 써서 좋습니다. 그
러나 “습너다”나 “음너다”나 한
가지로 통일할 하여 써야지, 같
은 글 가운데 “있습너다”와 “있
음너다”를 섞어서 써서는 안 됩
니다. 우리 “소학생”에서는 “있
습너다”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요 한 가지를 골라서 쓰도록
하십시오. (기자)

▲편편부 선생님을 안녕하십니
까? 요사가 읽기 매우 다뭇뭇해
서 우리들은 즐겁게 공부하고 운
동합니다. “주간 소학생”을 1호
서부터 계속하여 보는 중인데 4,
5, 6, 12, 24, 32, 34 호가 바
뀌었으니 합본 박이실 적에 한 부
씩만 더 박아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남 진주 중앙
국민고 황 계원)

▲미안한 일이나 더 박아서 보
내 드릴 수는 없으니 합본을 사
보도록 하십시오. (기자)

▲“주간 소학생”을 읽어 주시는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는 1호서부터 보고 싶지만 작함
은 한 톨도 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부리는 힘이 보게되
으니 잘 지도해 주세요. (서울
일신고 학 중원)

▲이제 기자 선생님을 안녕하십
니까? 벌써 이곳에는 꽃이 필
때, 선술에는 식재 봉오리라는
선생님을 맞이 되거든 외근하신
골을 편히 쉬도록 하십시오. 그
리고 여기에 제가 지은 동화 판
권을 보냅니다. 읽어 보시고 잘
지도하여 주십시오. 또 잘 되
지는 못하겠습니다가는 중요 두서
니 편 보냅니다. 선생님을 그러
면 안녕히 제십시오. (경남 진주
회 계덕)

▲“주간 소학생” 5월치 (특정
문의 과학)는 또지도 받고 써
미 있었습니니다. 6월치 알려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회원동
이 갑순)



★“주간 소학생”은 이월치 “소학
생”이라고 이름을 고쳤으니 “주
간 소학생” 대나 이름을 없이 정
제 계속 주시게 하련다.

★“소학생”이 월간으로 되어 좀
성정하다는 공부도 있으나, 제
는 권고나 더 좋게되라고 좋아
할 하여, 무슨 부모가 좋게해서
아름 말을 진실으로 사말하는
가정에서는 “소학생”이 월간이
고 정정해 주시니, 반등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심이 나지 않는다.

★합본을 앞두고 최상의 명제는
공부할때에 용지와 자질을 곡
뒤 주는 지리에서 이월치는 “출
생 특필”으로 하겠다. 여러 선
생님의 말하를 들었던은 물론 지
학생들이 꼭 읽으시기 하다가,
부디 목적을 달성하심을 편다.

★제 10 회이전에 “애국가 위한
상하거” 문제가 나오니 바 잘
명답을 써 보내시라.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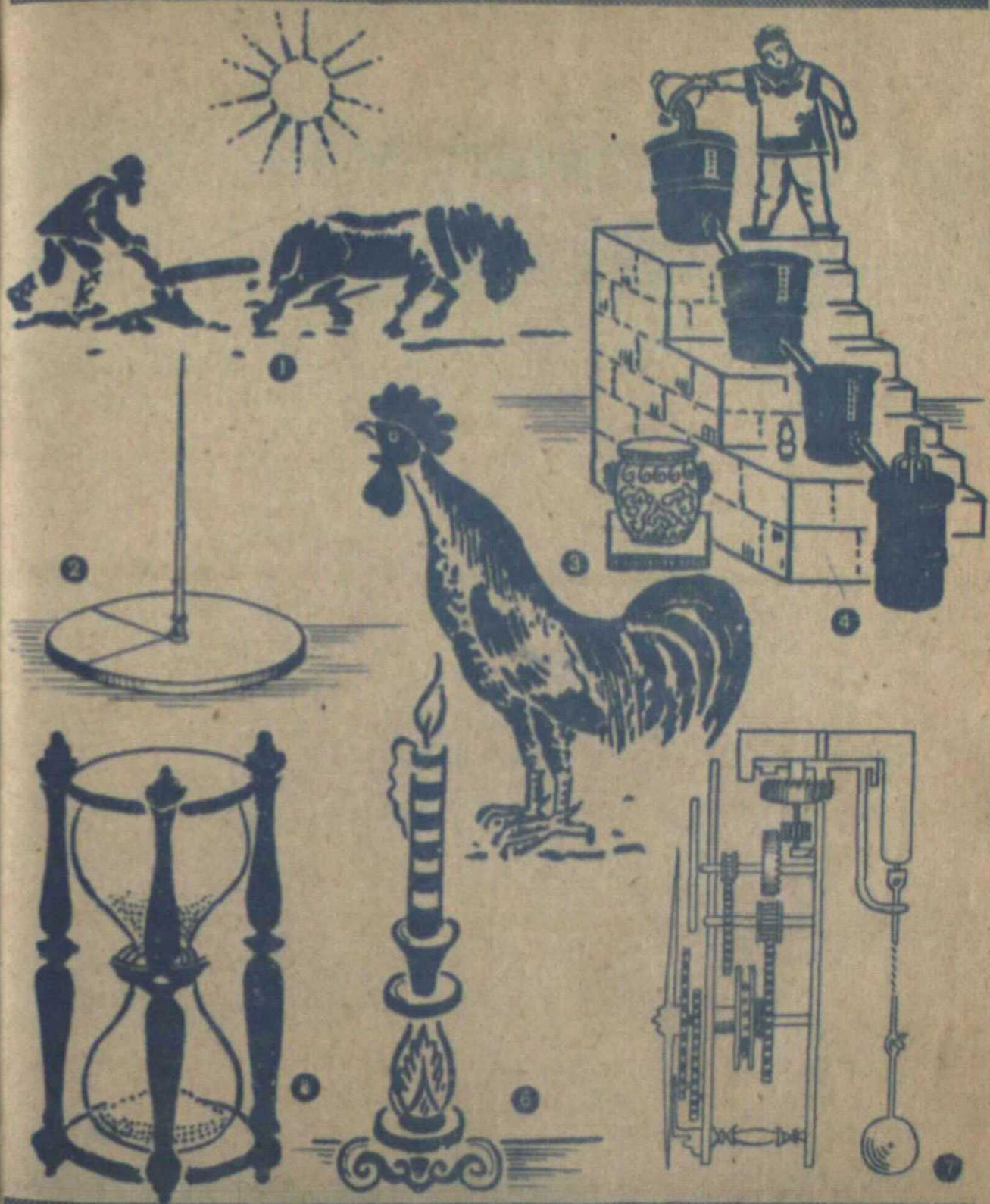
1947年 6月 1日發行
소학생 • 값 40 원
6월치 • 제 47 호

編輯兼發行人 尹石重
印刷人 劉輝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
서울 鐘路 2街 泰泰 印刷
電話 [北] 2970番 • 2422番

總發賣 • 乙酉 文化社
發賣 家統 27342番

小賣店 • 文章園 • 電話 318



시계의 내력

① 몇 백 년 몇 천 년이 지나도 고장 나지 않는 시계. 그것은 하늘의 별이다. ②는 별의 그림자로 시간을 재는 데 시계. ③ 어두운 밤이나, 구름 낀 날에는 별의 울



음 소리로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다. ④ 그러나 사람의 머리는 차차 발달되어서, 불이 붙어 내

리는 것으로 시간을 아는 물시계, ⑤ 그리고 모래시계, ⑥ 양초 시계를 만들었다. ⑦ 그 후 여러 가지 시계가 발명되었으며, 그렇게 있는 것은 화란의 천문학자 크레스판·뒤젠스가 발명한 수 려된 기동 시계다.

아협 새책

성 경린 선생 지은 조선 음악 독본

어머 분 가운데는 서양 음악을 잘 아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요. 그러나 조선 음악에 대해서는 깜깜할 것입니다. 성경린 선생님께서서는 어머 분에게 우리 자랑할만한 조선 음악 얘기를 들려 주십니다. 방송 보라도 재미있는 국악 감상.

이 영철 선생 지은 들리기 쉬운 말

죽어를 책 잘하는 분도 글을 써 나가다가 보면 반드시 몇 자 틀리고 말니까. 그래서 한글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글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들리기 쉬운 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 두지 않은 때문입니다.

함 덕 선생 지은 토끼 삼 형제

소년 소설을 지으시는 함 덕 선생님은 이번에 또 재미있고 아름다운 동화책을 어머 분에게 보냅니다. 글을 잘 짓는데 모범이요, 또 우리말을 잘 하는데 모범이 될 것입니다. 토끼 삼형제의 재능을 어머분은 손 꼽아 기마며 주십시오.

김 용환 선생 그린 토끼 전

아협 그림 얘기의 제 7 권입니다. 유명한 "토끼와 자라 이야기"가 김 선생님의 능숙한 붓으로 마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재미있게 꾸여졌답니다. 그림얘기책이 나올수록 도서관에서 아만들일때 이 책은 그 중 재미나는 책입니다.

방 정환 선생 지은 울지 않는 종

"소과 동화 독본" 제 2 권입니다. 어머분은 "까치 옷"을 읽어 보셨겠지요. 방 정환 선생님의 동화는 어머분의 아버지 어머니 언니 누나가 더 잘 아시는 것이므로 이 책으로 온 정안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신 분은 정현웅 선생님.

방 정환 선생 지은 나비의 꿈

"소과 동화 독본" 제 3 권입니다. "울지 않는 종"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책 속에 슬픈 얘기, 우순 얘기, 기운 나는 얘기가 섞여 있어서 한 번 책을 들면 놓아지지 않는 이상한 책입니다. 꼭 읽어 보십시오. 언필차 나옵니다.

매는 매 ★ 조선 아동 문화 협회